전통에서 근대로 향하는 오백년을 거닐다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3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전통에서 근대로 향하는 오백년을 거닐다

사랑방의 젊은그들 규슈를 품다

하영선 편

EAI
동아시아연구원

사랑방의 젊은 그들 규슈를 품다 3
전통에서 근대로 향하는 오백년을 거닐다

편저자 | 하영선
편집 | 최수이
디자인 | 신영환, 박현성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전화 | 02-2277-1683 (대표)
팩스 | 02-2277-1684
홈페이지 | www.eai.or.kr
등록 | 제2-3612호(2002. 10. 7)

ISBN 979-11-87558-34-7 05300

비매품

목차

답사일정표 003

❶ 일본 근대의 시작과 끝에 선 나가사키 _원폭자료관 — 이하형 — 005

❷ 미완(未完)의 외교관, 지볼트 _데지마 — 이슬이 — 023

❸ 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_글로버 가든 — 김민걸 — 041

❹ 일본의 심성을 찾아서 _나고야 성터 — 이화영 — 065

❺ 물마루를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길 _해상 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 김혜진 — 91

❻ 아리타, 지구적 도자기 문화의 중심에 서다 _규슈도자문화관 — 임현철 — 101

부록 119

답사 일정표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10:30	도착
10:40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글로버 가든 / 김민걸★
15:10 - 16:30	데지마 / 이슬이★
17:00 - 18:30	원폭 자료관 / 이하형★
19:00-20:00	저녁식사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09:00 -10:30	나고야성터 · 한일교류박물관/ 이화영★
10:30 -14:00	점심식사 및 이동
14:00 - 15:30	사세보 미군기지/ 김혜진★
16:00 - 17:00	아리타 도자기 박물관/ 임현철★
17:00 -17:30	이삼평 기념비
17:30 -18:30	이마리 도자기 거리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10:00 -11:30 일청강화기념관

11:30 -14:30 점심식사

19:20 - 출국



1 장

일본 근대의 시작과 끝에 선 나가사키
_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이하형
연세대학교

들어가며

2016년 크리스마스 이튿날 우리는 인천에서 후쿠오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답사지는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사용된 원자폭탄의 코드명이 삼위일체(Trinity)임을 생각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핵무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것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예수의 탄생으로 기원전(BC)과 기원후(AD)가 나뉘듯이 원자폭탄의 등장 이전과 이후는 서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의 연구책임자 로버트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는 트리니티의 폭발과 함께 치솟은 버섯구름을 지켜보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며 “나는 이제 죽음이자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힌두교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Bird and Kai 2005, 309).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와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에 '죽음의 무기' 원자폭탄 꼬맹이(Little Boy)와 뚱뚱이(Fat Man)가 각각 투하되었습니다. 8월 15일 정오 쇼와(昭和)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대일본제국'은 붕괴되었고 식민지 '조선'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꼬맹이와 뚱뚱이는 '조선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무기였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원폭이 일본의 항복을 가져왔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일본의 항복이 미국의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면 피식민지인들에게 원폭은 해방의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자들 중 '조선인'의 수도 약 3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꼬맹이와 뚱뚱이는 '해방의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죽음의 무기'였을 것입니다.



▲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전시된 실물 크기의 '뚱뚱이'

사실 '무엇이 일본의 항복을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의 원자폭탄이 주요했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소련의 대일참전이 더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왜 원자폭탄을 쓰기로 결정했는가'입니다. 몇몇은 일본과의 전쟁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반해, 또 다른 몇몇은 소련에 대한 무력시위가 주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가운데 전자는 전통주의적(Orthodox) 해석, 후자는 수정주의적(Revisionism) 해석과 맥을 같이합니다. 위의 두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답 사이의 관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원폭 겨냥 국가	
		대일본	대소련
일본의 결정적 항복요인	미국의 원폭	A (전통주의)	B
	소련의 참전	C	D (수정주의)

저는 이 글에서 A와 B의 복합(複合)을 시도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원폭 투하를 결정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신속한 종결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두 가지의 하위 전략적 목표를 지니고 있었는데, 미군의 피해 최소화와 소련의 일본 본토 점령 저지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1945년 8월 '항복'을 결정한

이유는 미국의 핵무기로 인해 일본 군부가 고집했던 본토에서의 결사항전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전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쟁을 종결 짓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즉 원폭투하)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원폭 결정

1945년 5월 7일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후 처리와 일본과의 전쟁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독일의 포츠담(Potsdam)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서기장은 뒤늦게 참석하였는데,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소련이 일본과의 전쟁에 신속히 참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늦어도 8월 중순까지 대일 선전포고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저항은 지독했습니다. 특히 미군에게 오키나와에서의 전투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자살특공대 카미카제(神風)의 공격으로 28척의 미군 전함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약 5천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키나와 상륙 이후 벌어진 육상전투에서 1만 명 이상의 미군 병사들이 전사하였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LaFeber 1998, 240-241). 오키나와에서의 혈전은 미국이 하루 빨리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본토에 상륙하여 직접 공격을 가할 경우 약 80만 명의 병력과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가장 먼저 고려한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련을 대일전에 나서게 함으로써 만주에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원자폭탄 투하였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마침내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포츠담회담에 참석 중이었던 트루먼은 "아이가 만족스럽게 태어났다"는 암호로 그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폭을 전쟁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소련의 참전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7월 26일 발표한 포츠담 선언의 마지막 조항을 통해 핵무기의 사용을 암시했습니다.

> "우리는 이제 일본정부가 모든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포하고, 그러한 항복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보증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 파멸뿐이다"(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III, No. 318, July 29, 1945).

여기서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은 바로 원자폭탄에 의한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즉각 수용하지 않았고 미국의 '아이들'은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트루먼은 훗날 원폭 투하를 결정한 이유를 '일본 전역이 오키나와 같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Chappell 1997, 104). 만약 일본 본토에 미군이 상륙하여 전투가 전개된다면 미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일본인들도 희생되었을 것이라며 원폭 투하 결정이 '도덕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트루먼이 추구한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신속한 종전이 가지고 있었던 최우선 전략적 목표는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적 목표는 만주에서부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소련이 일본 본토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패전국 독일을 소련과 공동으로 점령하였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하고 싶어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소련을 대륙에 묶어두는 것이 미국에게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 하에서 일본이 공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폭 투하의 부차적인 목표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속한 종전을 통한 미군의 인명 피해 최소화였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의 원폭 결정은 전후 소련과의 경쟁을 의식한 무력시위로 핵은 일본과의 '전쟁무기'가 아니라 소련과의 '외교무기'였다고 주장합니다(Alperovitz 1985). 그러나 이는 전후 펼쳐진 미소간 냉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트루먼의 결정을 설명하려는 일종의 현재주의(Presentism)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시급했던 사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과의 전쟁을 하루 속히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소련을 의식하여 원폭을 투하했다면 굉장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핵실험을 한 차례 성공한 상황에서 두 개 밖에 없는 핵폭탄을 사용했다가 실패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원폭이 실패하여 핵무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떨어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의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항복 결정

그렇다면 무엇이 일본을 '항복'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패배'와 '항복'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배는 물리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더 이상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패배에 직면한 지도자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는 '결사항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무기를 내려놓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내는 '항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배'는 1942년 6월 미드웨이(Midway) 해전에서 대패하고,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하여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항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천황의 모든 신민들이 목숨을 바쳐 본토에 쳐들어오는 연합국에 반격을 가하자는 이른바 '일억 옥쇄론'이 일본 육군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군부는 미국의 본토 상륙에 대비하여 일본 국민들을 죽도(竹刀)로 무장시켜 전선에 동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의 최고전쟁지도자회의는 주전파(主戰派)와 주화파(主和派)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포츠담 선언의 내용이 전해진 후 격론이 오갔지만 즉각적인 항복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8월 6일 인류 최초의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정부는 이틀이 넘게 지난 후에야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원자폭탄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군부는 원폭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파괴력을 은폐 및 축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원폭을 부정한 데에는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군부라는 조직의 자기이익도 한 몫을 했지만, 나름의 합리적 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과 육군은 1941년과 1943년에 각각 'F-연구'와 '니고'(二號)라는 원폭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년 간의 연구 결과, 해군과 육군 모두 원자폭탄의 개발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기술적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1945년 7월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트린 것이었습니다(Grunow2003, 162).

스즈키간타로(鈴木貫太郎) 수상의 지시에 의해서 히로시마로 파견된 '니고'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니시나 요시오(仁科芳雄) 도쿄제국 대학 교수는 8월 8일 저녁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TNT 2만 톤에 달하는 원자폭탄임을 공식 확인합니다(이완범 2013, 281). 이튿날 오전 10시 30분 황궁에서 최고전쟁지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나미고레치카(阿南惟幾)육군대신은 미국이 원자폭탄을 기껏해야 한 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것이라며 본토에서의 결사항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시 2분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폭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통신선은 파괴되지 않아 얼마 뒤 도쿄에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실 전날인 8월 8일 일본군은 미군의 폭격기를 격추하고 조종사인 마커스 맥딜다(Marcus McDilda)를 생포하여 심문하였는데, 맥딜다는 '미국이 100개 넘는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교토나 도쿄 등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Craig 1967, 73-74). 물론 군부는 처음에는 맥딜다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다음날 나가사키에도 원폭이 투하되면서 '믿음'은 '불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군부 역시 일본의 고도(古都) 교토와 천황의 도시인 도쿄에 원폭이 떨어지는 것은 감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전파들이 소리 높여 주장해온 '본토결사항전'은

핵무기 앞에서 무색하게 된 것입니다.

8월 9일과 14일 히로히토의 두 번에 걸친 '성단'(聖斷)에 의해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항복'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히로히토가 군부를 통제하기 위해 내세운 것은 천황으로서 일본 민족이 미국의 핵무기에 절멸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이창위2005, 284). 8월 14일 오후 히로히토는 방송국에서 '종전선언'을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된 연설을 15일 정오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 그날 새벽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황궁을 점거하고 녹음 테이프를 탈취하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 패망 하루 전>이라는 영화는 전쟁 말기 일본의 항복 결정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1967년 원작을 2015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여 리메이크되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미국의 원자폭탄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이 일본의 '항복'을 가져온 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Hasegawa 2005). 그러나 일본은 소련이 참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만주의 관동군은 소련과의 전쟁을 일찍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여름부터 대본영은 소련참전을 상정한 장기 지구전 계획을 마련하였고, 관동군은 1945년 1월 소련군이 만주와 한반도로 남하할 경우를 대비한 전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가토 2010, 42). 1945년 4월 소련이 일소중립조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고했을 때 일본은 소련이 참전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소련의 참전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원폭 투하가

일본에게 더욱 큰 '충격'이었고 이것이 일본의 항복을 가져왔습니다 (Asada 1998).

일본의 근대, 그 역사적 아이러니

나가사키는 일본에게 근대의 창(窓)이었습니다. 17세기 에도막부가 쇄국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는 계속 열어두었습니다. 주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다녀갔습니다. 일본이 1854년 미국에 의해 개항을 하고, 1868년에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에도시대의 변방이었던 나가사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슈번과 함께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사쓰마번은 나가사키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 제도, 사상 등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오쿠보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 '구시대'를 끝내기 위한 '유신'의 많은 주역들이 사쓰마번 출신들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요컨대 17세기 항구도시 나가사키를 통해 서구로부터 이식된 일본 근대의 씨앗이 19세기 메이지 유신을 통해 싹을 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피어난 일본 근대의 '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였습니다. 이 꽃을 꺾은 것은 씨앗을 가져다 주었던 서구 근대의 최종병기 원자폭탄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이끈 조슈번이 있었던 히로시마, 사쓰마번이 있었던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폭주하던 일본의 근대가 멈추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마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처럼 일본은 개항을 통해 자신을 근대의 세계로 낳은 미국이라는 '아버지'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켰고, 그 끝은 근대의 정점인 핵무기에 의한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무라이들은 근대적 군인으로 거듭나는데, 이들은 천황이라는 존재를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에게는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폭주하는 '일본 근대화'라는 열차의 기관사였던 일본 군부를 멈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신성시했던 천황이었습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천황의 군대로서 정당과 정치인들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해온 일본 군부가 종국에는 자신들이 만든 '신성한 천황'의 틀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전후 평화헌법에 의해서 '일본군'은 폐지되고 천황제는 유지되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1945년 8월 9일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도착한 우리를 처음 맞이해준 것은 금빛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소년들과 소녀들의 얼굴에서 왠지 모르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눈물처럼 보여서 그랬을까요?



▲ 나가사키 원폭기념관 동상 앞 만청(晩晴)과 사랑방 7기 청춘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구불구불한 길을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벽면에 적혀 있는 연도들은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1945년 8월 9일 이후였습니다. 뚱뚱이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나가사키의 도심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두운 조명 아래 반쯤 무너져 내린 성당의 모습은 묘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서구 문명의 중추인 기독교가 또 다른 서구문명의 중심인 과학기술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점이 기묘했습니다. 어쩌면 핵무기의 사용이 서구의 자기부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일본의 속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은 철저히 '피해자' 일본의 기억을 재생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자폭탄 투하가 결정되기 이전의 역사나 왜 일본이 원폭을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작 일본이 왜 원폭의 피해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반핵(反核)과 평화라는 가치로 미래에 대해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가 핵무기와 같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는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말이 떠올랐습니다(Hobsbawm 1997, 5). 홉스봄은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정치는 언제나 사실의 기억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 재구성될 수 있음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기억은 핵무기와 같은 '파괴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이 담고 있는 1945년 8월 9일의 역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2016년 5월 27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여 원폭에 의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월 28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주만을 방문하였습니다. 주변국들과 '식민지 역사'의 화해에는 소극적인 아베 총리가 미국과의 '전쟁 역사'의 화해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또 다른 기억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지니고 있는 핵의 역사는 미국이나 일본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원자폭탄에 의한 '조선인' 피해자들도 3만 명이나 되었으며, 일본의 항복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반도는 분할 되었습니다. 6·25 전쟁기간 핵무기의 사용이 고려되었습니다. 전후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었으며 이에 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일찍이 핵개발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미군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박정희 정권은 핵개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서로에게 겨눈 채 이어졌던 미소간 냉전은 와해되었지만 이는 '북핵'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요컨대 한반도에 드리운 핵무기의 그림자는 길었고, '조선인'에 이어 한국인은 또 한번 원폭 희생자의 위기에 서있는 것입니다.

나가사키는 원폭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임 직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원폭이 최초로 사용된 히로시마보다 나가사키를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월 7일에 직접 접은 종이학 두 마리를 나가사키시에 주일대사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오바마의 종이학은 현재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고민하는 한국인들도 한번쯤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핵무기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나가사키에서 '조선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삶을 떠올리며, 나가사키에서 그 비극의 역사가 끝나기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망해봅니다. ■

참고문헌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이창위.『일본제국 흥망사: 우리의 눈으로 본』서울: 궁리출판. 2005.

가토 기요후미 저. 안소영 역.『대일본제국 붕괴: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동아시아』. 서울: 바오, 2010.

Asada, Sadao. 1998. The Shock of the Atomic Bomb and Japan's Decision to Surrender: A Reconsideration. *Pacific Historical Review* 67 (4): 477-512.

Alperovitz, Gar. 1985. *Atomic Diplomacy: Hiroshima and Potsdam: The Use of the Atomic Bomb and the American Confrontation with Soviet Power*. Expanded and Updated ed. New York, N.Y.: Penguin.

Bird, Kai., and Sherwin, Martin J. 2005. *American Prometheus: The Triumph and Tragedy of J. Robert Oppenheimer*. 1st ed. New York, N.Y.: A.A. Knopf.

Chappell, John D. 1997. Before the Bomb: How America Approached the End of the Pacific War.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Craig, William. 1967. *The Fall of Japan*. New York, N.Y.: Dial Press.

Grunow, Tristan. 2003. A Reexamination of the "Shock of Hiroshima": The Japanese Bomb Projects and the Surrender Decision.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12 (3-4): 155-89.

Hasegawa, Tsuyoshi. 2005. *Racing the Enemy: Stalin, Truman, and the Surrender of Japanese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obsbawm, Eric John. 1997. *On History*. London: Weidenfeld & Nicolson.

LaFeber, Walter. 1998. *Clash: U.S.-Japanese Relations throughout History*.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1945. Vol. XIII, No. 318, July 29.

2 장

미완(未完)의 외교관, 지볼트 _데지마

이슬이
이화여자대학교

들어가며

사랑방 7 기 규슈(九州)답사 첫 날인 2016 년 12 월 26 일,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서 한껏 비를 뿌려주었던 하늘은 우리가 데지마(出島)에 발을 디딜 때가 되자 다행히도 비를 멈추어 주었습니다. 규슈로 떠나기 전 사료를 통해 만났던 데지마의 모습은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는 폐쇄적 모습이었지만, 2016 년 오늘날의 데지마는 매립 사업을 통해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나가사키 시가지로 빙 둘러 쌓여 있는 현대적 모습이었습니다. 데지마의 풍경 변화를 통해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하던 일본 사회가 350 여 년의 시간 동안 겪은 변화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데지마에서 일본사회에 대한 지볼트(Philipp Franz von Siebold)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를 위해 수집한 식물들로 꾸며진

지볼트 정원, 각종 수집품들과 그의 대표저서인 〈Nippon〉의 초판본이 전시되어있어 어렵지 않게 그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 <Nippon>
일본의 지형·역사·언어·종교·예술·정치·경제에 관한 방대한 저술을 담고 있다.



◀ 필립 프란츠 본 지볼트
(Philipp Franz von Siebold)

근대 국제정치 질서와 전통적 중화 질서의 충돌과 변환이 일어났던 19 세기, 데지마를 찾은 프러시아 태생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의사라는 배경을 가진 그가 일본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보여준 집념과 애착은 대단했습니다. 일본을 대(大)해양제국들의 야욕에 대항하는 '이상사회'로 인식했던 그는 일본이라는 이상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비폭력적·평화적 개항'을 주장하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Herbert Plutschow 2007).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이 조선과 청에 비해 비교적 평화적 개항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명 표준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조류(潮流)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한 미완(未完)의 외교관 지볼트의 이야기는 현대 국제정치 변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데지마의 역사와 지볼트

우리가 찾은 데지마는 9,000 m^2 크기의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으로 에도시대 쇄국정책(鎖國政策) 하에서 유일하게 서구 국가와의 무역이 허용된 공간이었습니다. 데지마는 원래 포교 활동으로 인한 포르투갈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637 년 나가사키 근처 시마바라(島原)반도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에 기독교 세력이 가담하면서 막부의 권위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이 일로 막부는 일본 전역의 그리스도 교도 가운데 절반을 처형하게 됩니다.

막부는 1639 년 포르투갈과의 무역을 전면금지하고, 포르투갈인들을 추방시키며 더욱 강력한 쇄국정책을 실시했고, 데지마는 빈 섬이 되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상인들은 막부에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배제된 통상을 제의하며, 자신들의 그리스도교가 포르투갈인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반란군과 그리스도 교도들이 저항하고 있던 하라(原)성에 포격을 가합니다. 결국 막부로부터 허가를 얻어 1641 년 히라도(平戸)에 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상관은 데지마로 옮겨졌고, 그 이후로 데지마는 대(對)네덜란드 무역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리우스 B. 잰슨 2006).

일본과의 통상을 독점하게 된 네덜란드 바타비아(Batavia) 정부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일본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무역 상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자바(Java)의 총독 카플렌(Capellen)은 이를 위해 박학(博學)한 인물을 찾고 있었고, 그 결과 지볼트가 낙점된 것입니다. 지볼트는 데지마에 체류하고 있는 네덜란드 선원의 보건 감독뿐만 아니라 과학연구 수행의 임무를 맡아 1823 년 8 월 8 일 그의 나이 28 살 나가사키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볼트의 1 차 방문(1828-29)과 지볼트 사건

데지마 상관(商館)에 체류하는 네덜란드인은 일본인과의 교류가 엄격히 금지되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거주 인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볼트는 나가사키 부교(奉行)로부터 허락을 받아 자유롭게 통행하며 일본인들을 진료하고 서양의술을 가르치며, 동식물의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특히나 그는 나루타키주쿠(牧瀧蘭學塾)를 설립하여 일본인들에게 서양의술을 가르치는 한편, 학생들에게 일본의 풍속, 지리, 법제, 행정, 예술, 종교, 정치체제에 관한 과제를 네덜란드어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1 차 체류기간(1823-1829)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Nippon>, <Flora Japonica>, <Manners and Customs of the Japanese: Japan and the Japanese in the Nineteenth Century>을 출판하면서 유럽대륙에서 제 1 의 일본학 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볼트 사건

1828 년 불거진 이 사건으로 인해 지볼트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1]로 명명되어 일본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서구문명에 대한 막부의 낮은 이해와 함께 이는 그들이 아직 서구문명에 문을 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 상관장(商館長)을 비롯해 데지마에 머무는 네덜란드 일행은 1790 년 이래 4 년에 한 번씩

[1]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의 라틴어로, 외교적 기피인물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이다.

에도(江戸)의 쇼군(將軍)을 알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826 년 지볼트는 수행의사로서 에도 기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는 기행 과정에서 막부 산하천문방(天文方) 소속 다카하시카 게야스(高橋景保)를 만나 에도의 도시 지도, 한국과 일본의 전도(全圖)를 건네 받습니다. 당시 막부는 외국인에게 일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과의 접촉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카하시가 지볼트에게 보낸 지도를 누군가가 가로채면서 불거졌습니다. 막부는 다카하시를 비롯한 관련인 30 여명을 체포했고, 상당수가 참형(斬刑)에 처해집니다. 다카하시는 투옥되어 심문을 받던 중 옥사하고, 지볼트도 데지마에 억류되어 심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막부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서구문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막부를 혼란스럽게 만든 두 가지 주장은 우선 그가 러시아 스파이라는 주장과, 지볼트 개인의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우선, 러시아 스파이라는 의문은 편지의 발신인인 지볼트가 프러시안이라고 폭로된 데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어에서 'Roshia'와 'Purosha'의 발음상 유사성으로 일본 당국은 지볼트가 러시아 정부의 스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공식 외교관계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부는 이를 입증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네덜란드 상관장 메이란(Maylan)에 의한 것으로 지볼트 개인의 과학적 호기심과 열정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란이 말하는 "scholar science"의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용어와 서구 지식은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정확히 이해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은 계속해서 학문적 활동과 첩보활동을 혼란스러워 합니다(Herbert Plutschow 2007, 19). 결국 막부는 1829 년 지볼트를 강제 추방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추방당한 후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해양세력들이 중국을 넘어 일본을 개항하기 위해 대외적 압력을 사용할 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이상사회'인 일본의 평화적 개항을 위해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와 접촉하기 시작합니다(Herbert Plutschow 2007, 45).



▲ 데지마 소개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네덜란드 정부에 바친 조약 초안

지볼트는 지난 2 세기 동안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유일한 서구 국가인 네덜란드가 일본을 평화적 개항으로 이끄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1852 년 4 월 8 일 네덜란드와 다른 국가들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하길 희망하며 네덜란드 식민지 장관에게 조약의 초안을 제출합니다.



▶ 지볼트 정원에서의 모습

총 5 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약 초안은 제한적 통상만을 허용하고 있던 일본의 법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제 3 조에서는 일본과 무역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지켜야 할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정부는 데지마와 같은 지역을 무역을 원하는 국가에 내주고(제 3 조 (a)), 나가사키항을 통한 통상을 규율하는 법제를 제정해야 한다(제 3 조 (f)).”

그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조약 초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일본과 일본의 개항에 대한 그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일본 정부에 **'일본제국'**(the empire)의 기본법들을 존중하는 조약 초안을 제공하라. 이 조약 초안은 만약 다른 해양 강대국들이 일본에게 **'국제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법제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다."(Kure Shuzo 1968, 307) (강조는필자)

지볼트는 편지에서 일본을 '제국'이라고 칭하며 일본을 제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강대국들이 일본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문명국만을 서구 문명과 동등한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던 서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가 일본을 국제법의 주체인 문명국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美)페리함대에 대한 희망

네덜란드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자, 지볼트는 미국의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총독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중간 기착지가 없었기 때문에 페리 함대는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을 돌아 일본을 향해야 했고, 덕분에

지볼트는 페리 함대가 일본을 개항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지볼트는 페리함대에 합류하기를 원했지만, 페리는 그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인 점을 이유로 그의 승선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지볼트는 독일어를 할 줄 아는 페리 함대의 두 인물 윌리엄(William Heine)과 테일러(Bayard Taylor)을 통해 페리함대의 성공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지볼트는 페리 제독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테일러의 편지로 인해 지볼트의 이런 염려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 "우리는 신의성실하게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함대는 일본을 압박하기에 충분히 강력하고, 경우에는 결국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Herbert Plutschow 2007, 57)

페리 함대에 대한 그의 기대를 꺾는 편지임에도 지볼트는 원정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 "일본이 외국인들과 접촉을 피하는 진짜 이유는 기독교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기독교의 제거에 기반한 쇼군의 지배체제가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 그러므로 미(美)대통령은 일본 황제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인물은 선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하다. 외교사절이 선교 사절이 아님은 자명하기 때문이다."(Herbert Plutschow 2007, 60)

지볼트의 이 충고는 페리함대와 일본이 교섭하는데 있어서 상호불신을 방지함으로써 무력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러시아 스파이라는 오해

지볼트가 러시아 스파이라는 오해는 그가 프러시아의 러시아 대사 바론(Baron)과 주고받은 서신이 공개되면서 상당부분 풀리게 되었습니다. 일본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네덜란드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지볼트는 러시아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로 인해 이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 러시아는 지볼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보냈던 조약 초안을 기초로 지볼트는 새로운 조약 초안을 작성해 러시아 외교부에 전달합니다. 이 역시 일본과의 무역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제한적 통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의 법제를 존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Franz 2008, 124). 서구 문명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본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상사회'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외교부와 해군은 일본 개항을 위해 푸차틴(Putiatin) 함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볼트의 조언이 푸차틴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기술뿐만 아니라, 러일화친조약의 문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페리 함대와 같은 조언을 통해 일본 사회와 법제에 대한 존중을 당부합니다. 덕분에 푸차틴은 에도가 아닌 나가사키로 항으로 바로 들어가 일본 반감을 낮추고 화친조약을 맺게 됩니다(Franz 2008, 122-124).

지볼트의 2 차 방문(1859-1862)

1829 년 일본 정부에 의해 추방당했던 지볼트가 1859 년 다시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처한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 정치환경의 불안정성 때문이었습니다. 30 년 간의 변화와 일본을 다시 찾은 지볼트의 외교적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정치 지형의 변동

지볼트가 일본 땅을 다시 밟기 1 년 전인 1858 년, 일본은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막부는 미국의 개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다이묘(大名)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250 년에도 막부 역사상 국가의 모든

외교정책을 단독 결정하던 막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다이묘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개국 문제는 쇼군의 후사 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막부와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2]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진행됩니다. 막부 측은 통상 조약의 조인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도쿠가와 요시토미(徳川慶福)를 후계자로 추천하는 반면, 개혁파인 도자마 다이묘들은 통상 조약에 반대하고 총명한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를 추천하며 갈등하게 됩니다. 반대파의 저항에 부딪친 막부는 그 동안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였던 천황으로부터 칙허(勅許)를 받음으로써 정신적 권위를 얻고자 하지만, 천황이 막부의 요구에도 통상 조약을 거부함으로써 전세는 반대로 기울게 됩니다. 이에 막부는 도자마 다이묘의 의견을 묵살한 채도쿠가와 요시토미를 쇼군으로 선언해버립니다. 막부는 나아가 반대파를 뿌리 뽑기 위해 비판자를 처형하며 공포정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 정치는 혼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부는 통상 조약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볼트의 가치를 인식하고 30 년 전 영구 추방조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국을 허용하게 됩니다.

돌아온 지볼트의 노력들

[2] 도자마 번(藩)은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 도사(土佐), 히젠(肥前)이다.

1859 년 일본에 돌아온 지볼트는 자신을 과학 선생으로 고용해 주길 바란다는 편지를 나가사키 부교를 통해 에도 막부에 보냈고, 결국 1861 년 막부의 허가를 얻어 에도의 남부 요코하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막부의 고문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둘러싼 서구 국가들의 힘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두 사건은 막부에 대한 지볼트의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1861 년 5 월 발생한 토젠지 사건(東禅寺事件)은 존황양이(尊皇攘夷)파 낭인이 영국 공관을 습격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고위급 외교 관료인 안도(安藤)는 지볼트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지볼트는 영국과 프랑스가 만일 이 사건을 이유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러시아의 리카체프(Likhachev)제독이 일본을 도와줄 것이라고 안도를 안심시킵니다. 또한 외국 공관 습격은 적대행위로 간주돼 국가간 전면적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식 사절단을 파견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절단은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1 개의 소함대로 편성되어야 하며, 주요 강대국을 돌며 유럽국가들의 안보정책을 파악하고 군사기술을 배워 강한 일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세밀한 조언합니다.

하지만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전에 일본은 또 다른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함대가 선박의 수리를 구실로 쓰시마 섬을 점령한 것입니다. 막부는 러시아의 쓰시마 섬 점령이 다른 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두려워했고, 안도는 이 문제에 관해 지볼트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볼트는 러시아 함대에 편지를 보내 “오직 조난의 경우에만 외국선박의 입항이 허용되는

곳에서 러시아의 긴 체류로 인해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이 다른 해양국가, 즉 영국과 프랑스를 자극할까 염려하고 있다"(Herbert Plutschow 2007, 133)는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영국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에서 쓰시마 섬을 점령한 러시아에 지볼트의 이야기는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함대를 쓰시마 섬으로 진군시키면서, 러시아는 쓰시마 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두 사건을 통해 막부는 지볼트의 바람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아닌 영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영국과 달리 산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영토, 통상에 대한 야욕이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지만,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미완(未完)의 외교관 지볼트

지볼트는 네덜란드나 일본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전통질서와 서구 근대 국제질서가 충돌하는 시대의 조류를 읽어내는데 미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미완(未完)의 외교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화적 개항을 통해 '이상사회'인 일본의 전통사회를 유지하면서 근대 국제질서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은 러시아와 연대를 통해 일본을 둘러싼 서구 국가의 세력균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 세기는 중화질서의 중심인 중국이 아편전쟁으로 무너지고, 중화질서에서 근대 국제질서로 문명 표준이 변환하던 시기였습니다. 과연 부국강병의 근대 국제질서가 문명 표준의 자리를 점해가고 있는 시대의 조류 속에서 일본이 전통사회의 모습을 유지하며 근대국가로 변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또한 과연 러시아가 일본을 구원해줄 국가였을까요? 160 여 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1850 년대 일본이란 시공간에서 이 질문에 답한다는 건 참 어려웠을 듯합니다. 변환의 시기를 읽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 중요한 것인지 오늘날의 젊은 우리들이 새겨야 할 이야기인 듯합니다. ■

참고문헌

마리우스 B. 잰흔. 2016.《현대일본을 찾아서 1》. 서울: 이산.

Franz, Edgar. 2005. *Philipp Franz von Siebold and Russian Policy and Action on Opening Japan to the West in the middle of nineteenth Century*, IUDICIUM Verlag.

_____ . 2008. *Siebold's involvement in the friendship treaty between Japan and Russia.*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6: 99.

Plutschow, Herbert 2007. *Philipp franz von Siebold and the opening of Japan : a re-evaluation*, Folkstone, UK: Global Oriental.

Shuzo, Kure.*Shiiboruto Sensei, vol.2* Tokyo, 1968.

3 장

나가사키에 제국의 닻을 내리다

_글로버 가든

김민걸

한양대학교

들어가며

> 조류(潮流)는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남자들,
> 그리고 그 명성이 보석처럼 빛나는 모든 선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실어 날랐다.
> 모험가들, 식민지 정착민들, 상인과 밀수업자들, 장군과 병사들,
> 그들 모두 칼과 횃불을 움켜쥐고 조수를 타고 떠나
> 미지의 세계의 신비 속으로 흘러들어 가듯이 강의 조류를 따라
> 제국이 탄생되었다.
> (Joseph Conrad 2007, 4-7)

러시아 태생의 영국 문학가 조지프 콘래드(Joseph Conrad, 1857~1924)는 1899년에 지은 소설《암흑의 심연》(*Heart of Darkness*)에서 강과 바다를

비롯한 수로를 '국가'의 씨앗이자 '제국의 기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 제국과 제정 러시아라는, 19세기를 대표하는 두 제국에서 나고 자란 콘래드가 남긴 이 표현은 아마도 100년 이상 '제국'(帝國)의 시대를 주도했던 유럽인들의 심상(心像)을 가장 간결하게 드러내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상은 봉건제의 해체, 자본주의의 태동, 국민국가의 맹아형성 등 한 세기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역사적인 기획들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며 '부국강병'(富國强兵)의 물상(物像)을 창조했던 16세기 유럽의 경험이 19세기 후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흐름을 타고 수 천년 간 지속된 '천하'(天下)의 시대를 살았던 동아시아에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17세기부터 쇄국정책의 한계에서나마 네덜란드 상인들과의 독점 무역을 통하여 서양과의 교류를 이어왔던 일본 남서부 지역의 나가사키(長崎) 항은 자연스레 1850년대 구미 열강에 의한 '개항의 국제정치'를 상대하는 최전선에서 구미 열강이 전파하는 근대 제국의 심상을 받아들이는 제1의 수신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세기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격변의 현장 복원이라는 임무를 부여 받은 '21세기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서, 1850년대 개항기의 나가사키 일대를 가득 채웠을 이들의 열정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발전했으며, 무엇을 남겼는지 가만히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개항기의 1850년대와 개화기의 1860년대를 통해서 조심스레 열도의 '안'에서 나와 '바깥'의 국제 무대에 오르게 된 신인 배우 일본의 입장에서 19세기 근대 국제질서의 표준인 부국강병의 연기를

세련되게 펼치는 구미 열강과의 만남이 절실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참고할 만한 근대 국제 무대의 노련한 배우로는 1814년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 체제가 수립됨과 동시에 출현한 두 세계 강국, 즉 영국과 러시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과 러시아는 세계질서 차원에서 대서양과 태평양, 유럽과 아시아 전선의 곳곳에서 치열한 세력권 경합을 벌입니다. 소위 '거대 게임'(Great Game)이라고 불리는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양상은 동아시아에까지 확장되어 '개화'(開化) 혹은 '양이'(洋夷)의 선택이 지역 단위로 공유된 고대 천하질서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에도 시대 말기에 중앙의 막부와 지방의 번부 간 대립이 첨예해졌던 원인 중 하나 역시 전함을 앞세워 개항을 강요하는 구미 열강들의 행태에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인지, 강화조약을 맺어 타협을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1850년대 개항기의 나가사키는 세계질서 차원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지역질서 차원에서 개화와 양이 간 논쟁, 국내질서 차원에서 막부와 번부의 대립이라는 3중 소용돌이가 동시에 휘몰아치는 한가운데에 놓여있었습니다. 과연 오랫동안 고대 천하질서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일본이 어떻게 열도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를 뚫고 불과 20년 만에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부국강병을 이룬 근대 국민국가로서,

그리고 중국이 관장하던 동아시아 천하질서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거듭났을까요? 혹시 영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구미 열강이 본격적으로 개항을 요구하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국에서 온 상인들과 교류하며 열도 저 너머의 세상을 그리기 시작한 1850년대 나가사키 일대에서 이뤄졌을 만남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160여 년 전 이곳에서 일본과 일본인들이 마주했을 '팍스브리타니카'(PaxBritanica)의 상징인 글로버 가든(Glover Garden)과 '유라시아 제국' 의 위용으로 다가왔을 전함 팔라다(Фрегат Паллада)를 중심으로 1870년대 메이지 유신에 이른 열정의 발자취를 뒤좇고자 합니다.



▲ 글로버 가든으로 향하는 출입구

마음으로 통한 동과 서의 열정

먼저 1850년대 나가사키에서 이뤄진 영국과 일본의 상징적인 만남과 그 주인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이 곳 나가사키 항의 절경이 내려다 보이는 미나미야 마테 언덕에 위치한 글로버 가든의 주인인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Thomas Blake Glover, 1838~1911)에서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 북동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인 에버딘(Aberdeen)에서 6남매 가운데 넷째로 태어난 글로버는 해안 경비대 소속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해운산업과 관련된 기술적인 교육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당시 에버딘은 해운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무역회사에서 약간의 경력을 쌓으면 선박 중개인 혹은 선장으로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콘래드가 소설에 남긴 구절대로, 글로버는 에버딘에 머무는 평범한 삶 대신에 '그 명성이 보석처럼 빛나는 모든 선박을 알고 있는 조류'에 몸을 맡기고, '미지의 세계의 신비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험을 결심하게 됩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고향을 떠난 글로버가 향한 곳은 바로 중국의 상하이(上海)였습니다. 글로버는 상하이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1830년대 청으로의 아편 수입을 담당하면서 급격히 성장하게 된 영국의 무역회사인 자르딘 마티슨(Jardine Matheson Holdings)에 근무하던 글로버의 먼 친척이 가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2, 92). 에버딘에서 상하이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중국에 도착한 1857년 당시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버는 약관의 나이에 망망대해를 건너 상하이에서 유명한 영국 무역회사에서 일하게 된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사업 기회를 찾아서 일본으로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1841년 제2차 아편 전쟁과 1842년 난징 조약으로 청을 개방시킨 구미 열강은 개항의 다음 대상으로 일본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터였고, 많은 상인들의 사업적 관심 역시 그러한 국제정세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버는 동향 출신의 무역상 케네스 로스 맥켄지(Kenneth Ross Mackenzie)를 따라서 일본으로 향하게 되고 1859년 9월 19일 나가사키에 발을 내 딛으며 일본과의 기나긴 인연을 시작합니다(McKay 1993, 14-15).



▲ 노년기 글로버의 사진

약 2년 간 자르딘 마티슨 소속으로 맥켄지 아래서 일을 하던 글로버는 1861년까지 당시 나가사키 일대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되었던 데지마(出島)에 거주하다가 그 해 6월에 설립된 나가사키 상업 회의소의 요직에 당선됩니다(BBC Scotland 2011). 한때 글로버의 사업 멘토 역할을 했던 멕켄지는 통상을 둘러싼 당시 일본 내부의 정치적 거부감으로 인한 외국 상인들의 무역활동 제한과 생각보다 적은 이윤, 그리고 글로버의 성공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상하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글로버는 맥켄지가 남기고 간 자금으로 1860년부터 외국인의 거주가 허용된 미나미야 마테 언덕 위에 자신의 저택을 짓기 시작하여 1863년 완공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글로버 가든입니다(McKay 1993, 34).



▲나가사키에서 보낸 글로버의 삶이 깃든 저택

맥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글로버는 이때부터 상하이에서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영국산 차(茶) 무역을 독점하며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버딘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나가사키에 이르기까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며 일본에서 머무를 집까지 지었던 1863년 당시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글로버는 또 다시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성공의 기회를 찾아 노력했는데, 그간 쌓아온 일본어 실력으로 나가사키 일대의 사무라이들과 친분을 쌓기 시작하면서 당시 일본의 국내 정세를 판단하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전함을 앞세워 통상을 강요하는 구미 열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한 에도 막부 세력과 나가사키 일대의 사츠마(薩摩)와 조슈(長州) 번부 세력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했던 글로버는 자연스레 막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번부 사무라이들과 의기투합하며, 스스로를 '스코틀랜드 사무라이'(Scottish Samurai)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McKay 1993, 37-39).

특히 글로버와 메이지 유신의 3대 영웅으로 꼽히는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1833~1877)의 만남은 1850년대 천하질서의 변방이었던 일본에 휘몰아친 영국 대 러시아, 개화 대 양이, 막부 대 번부라는 3중 소용돌이를 돌파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1870년대에 출범하는 메이지 신정부가 번벌 정부라는 중앙집권체제로 확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기도는 일찍부터 번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검술에 정진하여

훗날 이름난 검술가로 손꼽힐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1849년 당대의 사상가이자 메이지 유신의 아버지로 불리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의 문하에 들어가 병학을 닦은 이후에 1862년부터 조슈 번의 요직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기도에게 1863년 양이를 방침으로 하는 에도 막부의 의향에 따라 조슈 번의 군대가 시모노세키(下関) 해협을 통과하는 외국 함선을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위기가 닥쳐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외국 함선의 압도적인 화력과 요시다 문하에서 배운 병학의 상식은 제아무리 피가 끓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막부와는 다른 신중론을 내세워 자제할 것을 주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막부에 의해 기도의 의견이 묵살되고 급기야 조슈 번 과격파가 정계에서 대거 축출당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기도는 1865년에 쿠데타로 번부의 요직에 되돌아오기까지 은둔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막부의 서슬 퍼런 감시를 피해 다녔던 2년 동안 기도는 막부 타도를 위해 독립적인 군사 기지를 형성하고 번부의 역량을 결집할 행정과 군제 개혁에 매진하게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게 당시 나가사키에서 가장 큰 외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기반을 활용하여 막부 세력을 전복하는 데 필요했던 군함, 소총, 기계 등 모든 것을 제공해줄 수 있었던 글로버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협력 대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Brown 1993).

1865년에 기도는 나가사키에 있는 사쓰마 번저에 사쓰마

가명으로 위장한 조슈 번 소속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를 보내 글로버와 중요한 군수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글로버와 기도 간 밀거래의 대가로 사쓰마의 군대는 조슈의 쌀을 받아서 식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었고, 조슈는 증기 군함과 다량의 소총과 대포 등 영국제 중장비로 무장하여 1866년 막부의 군사 정벌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도 막부가 영국 여왕에게 직접적으로 조슈 세력과 영국 무기상들의 군수품 밀거래를 불법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상황에서, 글로버 역시 조슈와의 밀거래가 적발되면 크게 처벌당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글로버가 기도의 요구에 응하여 반(反)막부 세력에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나이대가 비슷했던 둘 간에 형성된 심리적 유대감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1865년 시모노세키에서 기도와 글로버의 첫 만남이 이뤄졌을 때, 그 둘의 나이는 각각 32살과 27살이었습니다. 물론 글로버가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상인으로서 이윤을 남기는 일이라면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이든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글로버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던 맥켄지를 비롯하여 당시에 많은 영국 상인들이 나가사키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버딘에서 상하이까지, 그리고 다시 나가사키로 향하는 여정을 이끌었던 새로움을 향한 열정과 일본 국내정세에 대한 안목은 오직 글로버만이 갖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열정이 기도와 조슈 사무라이들이 지녔던 열정과 통했었기에, 오늘날까지 글로버가 19세기 영국과 일본 관계의 상징으로 기억되며 많은 이들이 글로버 가든을 찾게 된 것입니다.

고요한 항만에 드리운 제국의 위용

글로버가 나가사키에 첫 발을 내 딛으며 일본과의 기나긴 인연을 시작했던 때보다 6년 전인 1853년 9월 10일 고요한 나가사키 항의 정박지에 거대한 러시아 전함 팔라다가 들어섭니다. 1852년 10월 7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Санкт-Петербург)를 출발한 전함 팔라다는 청, 일본,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855년 2월 13일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전함 팔라다는 발트 해를 거쳐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 인도양과 남해에 이르는 긴 여정을 소화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군함을 앞세워 일본의 개항을 강요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제정 러시아는 1852년 해군 대령인 예브피미 바실리예비치푸탸틴(ЕвфимийВасильевичПутятин, 1803~1883)을 제독으로 임명하여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이라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19세기 제국의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 전선에서 영국과 세력권을 경합하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세계의 바다'를 양 옆에 거느린 유라시아 제국으로 거듭난 입장에서 다른 구미 열강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개항의 국제정치'에 빠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1853년 나가사키 항에 들어선 전함 팔라다로 상징되는 러시아는 1859년 나가사키에 첫 발을 내디뎠던 글로버로 상징되는 영국처럼 1850년대 개항기의 일본에 매력적인 대상으로 다가왔을까요? 다행히 푸탸틴 제독의 비서로 전함 팔라다에 탑승했던 작가인 이반 알렉산드로 비치곤차로프(ИванАлександровичГончаров, 1812~1891)가 남긴 동명의 기행문 《전함 팔라다》(Фрегат Паллада) 덕분에 그 만남의 순간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항의 오늘날 모습

우선, 곤차로프의 기록을 통해서 그를 비롯한 당대의 러시아인들이 일본과 일본인을 어떠한 심상으로 받아들였을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곤차로프가 남긴 기록을 보면, 서양과 서양인의 시각에서 동양과 동양인을 다소 내려보는 듯한 느낌으로 나가사키에서 마주친 일본인들을 묘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19세기의 일본은 17세기 데지마를 통해 네덜란드의 상인들과 제한적으로 교역했던 것에 비해 서양과의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동성과 경직성이 일본인들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양을 주체, 동양을 객체로 상정하는 19세기 유럽 제국들의 동아시아에 대한 심상이 곤차로프의 기록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미 열강의 통상 요구에도 막부의 방침에 따라 여전히 쇄국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부국강병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는 개항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며 러시아와 영국을 일본이 참고해야 할 모범국가로 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 그들 일본인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 좋은 일을 해주려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했고,
> 특히 설득하지 못했다.
> 그들은 비록 원하기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 남의 나라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치 아이들처럼 행동한다.(중략)
> 만약 모든 나라들에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으면

무역이나 전쟁이나 모든 부분에서 러시아가
지금의 러시아가 될 수 없었고,
영국이 지금의 영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들을 건드리지도 그들에게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아이들 같은 생각이 아닌가?
(이반 곤차로프 2014, 196)

당시 곤차로프는 푸탸틴 제독과 나가사키 영주의 협상에 동석하여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의 기록 너머에서 군인 기질을 발휘하여 높은 언성으로 도쿄에 있는 쇼군에게 러시아와 일본 간 통상조약의 의향을 담은 짜르의 칙서를 전달하라는 푸탸틴 제독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푸탸틴 제독의 태도에 기가 죽기도 하고 쇄국정책을 철썩 같이 밀어붙이는 에도 막부의 쇼군을 생각하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하여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나가사키 영주의 모습 역시 떠오릅니다. 아래에는 푸탸틴 제독이 통역을 시켜 나가사키 영주에 전한 말입니다.

허가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허가가 곧 나올 것
같습니까?(중략)
당신들은 우리의 정중함과 관심을 인정해주지 않는군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벌써 예전에 스스로 해안에 내려갔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건대 나가사키는 단순히 외국인을 속이기 위해
유인하는 함정이다.
수도에서 멀고 협상에 싫증 나고, 손님들은 지쳐서 떠난다.
이것이 당신들의 목적이다. 하지만 전 유럽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배도 이리로 오지 않을 것이고,에도로 바로 갈 것이다.
이를 의심하지 마시오.

(이반 곤차로프2014, 231)

당시에 협상이 각각 러시아어와 일본어 통역관을 통해서 이뤄졌으며 협상에 직접 임한 푸탸틴 제독이 아니라 이를 관찰하던 곤차로프가 남긴 기록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을 강요하는 러시아 사절단의 고압적인 태도가 협상 분위기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가사키 영주를 비롯한 일본 협상단의 눈에 거대한 전함 팔라다를 타고 온 러시아 사절단은 긍정적으로 비쳐졌을까요? 어찌 보면 곤차로프가 기록에 남긴 대로 푸탸틴 제독을 비롯한 러시아 사절단은 '일본인들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주려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못했고, 특히 설득하지 못한' 셈입니다.나가사키의 일본인들에게 전함 팔라다를 통해 제국의 거대한 위용을 뽐냈을지언정, 결국엔 그들의 심상에 긍정적으로 기억되지 못한 게 앞서 살펴본 글로버와 기도의 만남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마주한 제국의 실체

이제는 시계추를 좀 더 뒤로 돌려 1870년대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으로 가서 1850년대 나가사키에서 마주한 글로버 가든과 전함 팔라다의 실체를 직접 목격하게 되는 순간을 복원해보겠습니다. 1871년 12월 23일 미국 방문을 기점으로, 당시 메이지 유신 정부의 외무대신이었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1825~1883)가 이끄는 대규모 사절단이 2년 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구미 12개국을 순방하게 됩니다. 당초 사절단의 파견 목적은 이전에 구미 열강과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 개정을 위한 예비 교섭이었으나 이는 금세 좌절되었고, 대신에 근대화를 이뤄낸 서양 각국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행원 신분으로서 이와쿠라 사절단의 구미국가 탐방 기록을 남긴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1839~1931)는《미구회람실기》(特命全權大使 米歐回覽實記,이하《실기》) 전체 분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면을《실기》 제2권 영국에 할애했습니다. 이는 방문 국가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8개월간 머문 미국과 같은 분량으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침 이와쿠라 사절단이 영국을 방문했던 1872년은 영국이 제국으로서 가장 번성한 황금시대로 기억되는 런던만국박람회가 개최된 1851년부터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에 취임하는 1876년의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을

직접 방문한 이와쿠라 사절단과 함께 '팍스브리타니카'(PaxBritanica)의 실체를 목격한 구메는 아래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럽이 오늘날과 같이 번영하기 시작한 것은
1800년 이후의 일로,
그 양상이 확실하게 두드러진 것은
불과 최근 40여 년의 일이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가 일으킨 전란으로
유럽 열강은 혼란을 겪고 있었으나
영국만은 전란을 피해 해외 식민지를 확장하고
국내의 산업을 일으킨 것이1800년대 초반이다.(중략)
먼저 영국정부가 사람들의 강한 요망에 부응해
공업기술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교육을 일으키자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4년 전의 일이다.
(구메구니타케 2011, 90)

영국은 상업국이다.
민의 정신은 세계의 무역을 향해 집중하고 있다.
오대양에 선박을 띄워 각지에서 사들인 특산물을
자국으로 수송하고,
철과 석탄을 이용해서 공업제품을 만들어
다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한다.

이것이 3천만 명의 정신력이자 사는 방식인 것이다.

(구메구니타케2011, 416)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1873년 3월 29일(음력)부터 약 2주간의 일정 동안 당시 제정 러시아의 정치, 군사, 경제, 산업의 중심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집중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쇄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1853년의 나가사키 항에 출현한 전함 팔라다 이래로 일본인들이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유라시아 제국'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메가 《실기》 제4권의 전반부에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에 대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인상은 '불모의 땅', '교통의 낙후', '부족한 부동항', '너무 화려한 귀족들과 너무 가난한 농민들', '무역의 부진' 등의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대한 이와쿠라 사절단의 시선은 복잡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에게 러시아는 원망과 공포의 시선이 교차하는 관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명국 혹은 강대국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관념의 러시아와는 달리 현실의 러시아는 이와쿠라 사절단이 이전에 방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태껏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경외의 심상을 지니게 된 원인을 구메는 아래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체 이 망상이 일본인의 뇌리에 박히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과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옛날 '원화언무'(元和偃武)이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과 국교를 끊고 기독교를 엄금하여외국이 우리나라를 엿보게 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국가의 안녕이 200년 넘게 계속되었다.
그런데 1804년 9월에 러시아의 사절 레자노프의 군함이 돌연 나가사키의 가미노시마에 와서 발사한 예포의 진동이 전국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 이래 양이쇄국의 논의가 전국적으로 격하게 일어났다.
이 분카(文化) 연간에서 가에이(嘉永), 안세이(安政) 연간에 이르기까지 쇄국을 논하는 사람들이 국제정세를 고찰하면서 러시아는 무섭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 것이다.(중략)
지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모두 쇄국 상태에서우물 안 개구리 같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 생긴 망상이고구미 각국의 사정이 반드시 그런 논의와 같지도 않았다.
(구메구니타케 2011, 136-137)

구메는 1804년에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요구하던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레자노프(НиколайПетровичРезанов, 1764~1807)가 이끌던 러시아 전함과 당시 일본인들과의 만남이 이뤄졌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수 백 년간의 쇄국 정책으로 유지되어온 나가사키 항의 고요함을 깨뜨렸을 전함의 대포 소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심상으로

일본인들의 마음에 투영된 것입니다. 비록 푸탸틴 제독이 이끄는 1853년의 전함 팔라다는 무력시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곤차로프가 남긴 기록에서 느껴지는 고압적인 자세와 거만한 시선은 1804년의 레자노프 사절단에서 비롯된 러시아에 대한 경외의 심상을 한층 강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만남'의 소중함

이상 1850년대 개항기의 일본이 열도의 안과 바깥에서 마주했던 3중의 소용돌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글로버 가든과 전함 팔라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메이지 유신 간의 삼각 관계를 통해서 나가사키가 품은 19세기 유럽과 동아시아가 만나는 순간을 복원해봤습니다. 청춘의 꿈을 안고 나가사키에 첫 발을 내디뎠던 21살의 영국 청년의 삶은 19세기 후반의 일본과 깊은 인연을 맺어 오늘날까지 영일 관계의 상징인 글로버 가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반면 짜르의 칙령을 안고 고요한 해안에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던 전함 팔라다의 모습은 오늘날 나가사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연처럼 다가오는 어떠한 만남, 그 순간이 당대의 세계와 지역과 국가와 개인이 처한 현실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역사에 남을 만큼 거대해질 수도 있음을 다시금 절실하게 느껴봅니다. ■



▲나가사키 항의 전경을 감상하는 사랑방 7기

참고문헌

구메구니타케, 방광석역. 2011.《특명전권대사미구회람실기: 제2권영국》. 서울: 소명출판.

구메구니타케, 방광석 역. 2011.《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제4권 유럽대륙(중)》. 서울: 소명출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2012.《한국의 국제정치학도, 일본 근대화를 만나다: 서울대생들의규슈와 도쿄 이야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반 알렉산드로 비치곤차로프, 문준일 역. 2014.《전함 팔라다》.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BBC Scotland. 2011. "The Last explorers, Thomas Blake Glover." December 15.(Accessed: October 21, 2016).http://www.youtube.com/watch?v=pzvo31RrPqo

Brown, Sidney D. 1993. "Nagasaki in the Meiji Restoration: Choshu Loyalists and British Arms Merchants." CROSSROADS 1.(Accessed: October 21, 2014).http://www.uwosh.edu/home_pages/faculty_staff/earns/meiji.html.

Conrad, Joseph. 2007. *Heart of Darkness.* California: Coyote Canyon Press.

McKay, Alexander. 1993. Scottish Samurai: Life of Thomas Blake Glover.

Edinburgh: Canongate Books Ltd.

Nagasaki Foreign Settlement http://www.nfs.nias.ac.jp/

Гончаров,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1976.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Москва: Советская Россия.

グラバー園公式ウェブサイト.http://www.glover-garden.jp/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

特命全権大使米欧回覧実記.第2篇英吉利国ノ部.

http://dl.ndl.go.jp/info:ndljp/pid/761503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

特命全権大使米欧回覧実記.第4篇 第4篇 欧羅巴大洲ノ部 中.

http://dl.ndl.go.jp/info:ndljp/pid/761505

4 장

일본을 향한 우리의 심상을 찾아서
_나고야 성터

이화영
서울대학교

나고야 성터와의 운명적 만남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가라쓰의 아침. 답사 둘째 날의 시작을 알린 장소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출병 기지로 성을 세웠지만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는 나고야 성터(名護屋城跡)였습니다. 사실 나고야 성터는 원래 사랑방의 답사 장소로 가장 처음 지정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방문하려 했던 곳은 이전 사랑방 기수들이 방문했던 '한일교류박물관' 이었으나, 하필 2016년 겨울 공사가 진행되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던 중, 박물관 옆에 성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답사 장소로 선정된 것입니다.

30분 남짓 숙소에서 버스를 타고 나고야 성터 부근에 도착하니, 다행이 그 사이에 비가 그쳐있었습니다. 그리고 흐린 날씨의 이른 평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나고야 성터에 관광객이라고는 사랑방 팀이 전부였습니다. 마치 성터 전체를 빌린 것 마냥 들뜬 마음으로 성터

중심부를 향해 올라갈 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나고야 성터 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마치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기지를 몰래 방문한 적군을 대하는 것처럼 성터의 강한 바람은 우리에게 답사 내내 묻는 듯 하였습니다. 여기에 왜 온 것이냐고 말입니다.



▲ 나고야 성의 정문인 오테구치(大手口)에서 올라가는모습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심상을 찾으러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답사를 떠나기 전 나고야 성터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저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나고야 성터가 저에게 일본에 대한 다양한 심상을 탐구하게 해줄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장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서도 가장 작은 현인 사가현 가라쓰시(佐賀県唐津市)에 위치한 나고야 성터는 대마도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도요토미가 임진왜란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 각지의 다이묘 진영이 만들어지면서 교토나 오사카와 같은 큰 번화가가 되었고, 근처 요부코항(呼子港)에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배를 정박시켰다가 한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나고야 성터 주변에 그러한 전쟁들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1993년 10월 30일 나고야 성터 근처에 나고야성 박물관(名古屋城博物館)이 설립되었고, 더욱이 2001년부터는 사가현 한일교류센터(佐賀県日韓交流センタ)도 만들어져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고야 성터는 전쟁이라는 어두운 한일교류 역사 현장에서 새로운 시대의 한일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복합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소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심상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도요토미히데요시', '임진왜란', '한반도 공격기지'라고 생각하고 나고야 성터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일본 심상을 떠오르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나고야성 박물관, 한일교류센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에도 일본과 한국과의 교류가 단지 부정적인 심상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나고야 성터의 산노마루(三ノ丸)부근

조선전기 일본을 향한 두 개의 심상

과거의 다양한 한일교류에서 조선은 일본에 대해 어떠한 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특히 나고야 성터와 관련된 임진왜란이라는 조선민족의 뼈아픈 사건이 반일 심상을 구성하기 이전인 조선 전기에는 어떠한 일본 심상이 자리잡고 있었는지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 심상을 알아보기 위해 통신사 사행 기록을 살펴보려 하였는데, 조선 전기 통신사 교류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처음'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정례화 된 1428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1592년까지 일본에 파견된 8번의 통신사 교류를 정리해보면, 약 164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작 5번만 통신사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히 1479년부터 임진왜란 직전인 1590년까지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선은 아예 통신사 교류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같이 100년이라는 단절된 시기를 거치기 이전과 이후의 조선전기의 일본 심상을 그 당시 대표 기록물인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와 김성일의 《해사록》(海槎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통신사'라는 이름이 정례화된 1428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1592년까지의 조선전기 일본 심상을 특히 《해동제국기》와 《해사록》을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표1] 조선전기(1428-1592)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국왕 (연도)	파견성공유무	대표 기록물
1	세종 10 (1428)	성공	
2	세종 14 (1432)	성공	
3	세종 21 (1439)	성공	
4	세종 25 (1443)	성공	신숙주《해동제국기》
5	세조 6 (1460)	실패 (해난조난으로 중지)	

6	성종 6 (1475)	실패 (일본내란 및 해적으로 중지)	
7	성종 10 (1479)	실패 (일본내란으로 대마도에서 귀국)	
약 100년 이상 통신사 파견중지			
8	선조 23 (1590)	성공	김성일《해사록》

조선전기 동아시아와 한일교류의 특징

신숙주의 《해동제국기》와 김성일의 《해사록》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그 당시 조선과 일본간 교류를 동아시아라는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끼고, 조선전기를 크게 15세기와 16세기 두 시기로 나누어, 이 각각의 시기에 동아시아 정세와 한일교류의 특징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5세기의 동아시아는 명 중심의 조일 교린관계의 시작과 왜구의 잦은 침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에 걸쳐서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368년 명이 원을 몰아내며 건국되었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됨과 동시에 일본에서는 무로마치(室町)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가 남북조 내란을 수습하면서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었습니다. 삼국 모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며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판짜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명이 조선, 일본과 함께 15세기 조공 · 책봉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체제에 함께 편입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호교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조선과 일본이 중국의 질서체제에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활발한 물적 교류, 통신사 파견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중국과의 조공 · 책봉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대일심상 또한 중국을 둘러싸고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대외인식의 틀은 주자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둔 '화이관'(華夷觀)으로 조선은 스스로를 '소중화'(小中華)라고 하며 중국에 버금가는 국가로서 스스로를 인식시키는 한편, 유교문화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본을 '이적'(夷狄)으로 간주하였습니다(하우봉 2013, 162).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유교적 사대질서에 따라 서로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일본의 서계주봉(瑞溪周鳳)이 편찬한 일본 최초의 외교사서인 《선린국보기》(善隣國寶記)에서 일본이 예를 깍듯하게 지키며 조선을 상국으로 모시는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이용희, 1970).

이렇게 조선이 일본을 이적으로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13세기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간 한반도와 중국대륙 연안을 습격했던 왜구의 심각성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쿄대학 명예교수인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이 왜구들을 조선시대 전기에

국가의 영역을 뛰어넘는 '경계공간'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생활을 하는 이들로 보고 '경계인'(境界人)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송희경의《노송당일본행록》(老松堂日本行錄)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 당시 조선에게 있어 일본과의 외교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왜구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이 문제에 있어서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정벌(1419년)하는 군사적 강경책과 부산포, 염포(울산), 제포(진해), 삼포(三浦)를 개방(1426년)하는 유화책 두 가지 양면 정책을 펼쳤고,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를 통해 조약에 의해 조선이 허락한 무역선을 연 50척만 파견하는 통교체제를 정립하며 비교적 정착된 일본과의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계해약조에 의해 잠시 안정된 듯 보였던 왜구문제는 1460년대가 되면서 통교 왜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15세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15세기와는 달리 16세기에 들어서 한일교류는 1510년 삼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삼포왜란(三浦倭亂)을 시작으로 어두운 장막이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삼포왜란을 통해 조선은 일본과 공식적인 무역을 단절하였고, 이후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로 국교를 재개하긴 하였으나, 제포만 개항하여 이전보다 더욱 제한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그에 따라서 1544년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그리고 1587년 정해왜변(丁亥倭變)을 통해 왜구들은 계속해서 조선과의 교류확대를 요구하는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로 15세기 조선

연해안에 침입하던 왜구는 16세기부터는 중국 남쪽해안을 침입하면서 명나라에게도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명의 내정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동아시아 내에서 명의 영향력은 약화되기 시작한 반면, 이 시기에 일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조선과 교린관계를 유지했던 무로마치 막부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의해 멸망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오랜 평화의 시기를 보내며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지식인들의 세계 인식도 15세기 소중화 단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 일본이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내전인 전국시대(戦国時代)를 맞이하게 되어 통신사의 안전이 확보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통신사 파견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성종(1483년), 중종(1535년) 그리고 명종(1557년) 때까지도 논의가 되었으나 파견이 진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부적, 외부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16세기 조선은 국제 정세에 둔감해 질 수 밖에 없었고, 마침내 16세기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일본과의 참혹한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5세기와 16세기 두 시기로 나누어서 본 동아시아 속의 한일 교류의 전반적인 특징은 조선의 '소중화' 사상과 일본 왜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 후 교류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숙주와 김성일은 조선전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신사로서 일본을 방문한 것들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유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일본을 바라보았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일본 심상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해동제국기》로 본 신숙주의 일본 심상

《해동제국기》는 조선의 학자, 외교관 및 정치가였던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성종 2년(1471년) 12월에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책입니다. '해동제국'은 일본 본국과 류큐국(琉球國,현 오키나와 일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지역들의 정치, 역사, 지리, 풍속, 조빙응접(朝聘應接)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이 쓴 최초의 일본 기행문은 송희경의 《노송당일본행록》이지만 이것이 시와 산문의 형태로 기록한 사행일기라면, 《해동제국기》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일본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아서 조선 후대에도 크게 지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편찬한 시기와 실제로 일본을 방문한 시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신숙주의 일본 통신사행은 정사(正使) 변효문, 부사(副使) 윤인보가 파견되었을 때 서장관(書狀官, 외국에 보내는 사신을 따라가는 기록관)으로 1443년(세종 25)에 이루어졌고, 《해동제국기》는 28년이 지나고 1471년에 편찬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생기된 이유는 세조 때부터 일본 측의 사신 왕래와 통상 요구가 증가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규범이나 법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세조와 성종 때 사대교린 외교의 사무를 총괄했던 당대 제일의 일본 전문가인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집필하여 빙례(聘禮)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동제국기》는 근본적으로 왕명에 의해 '일본외교참고서'로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신숙주는 일본의 어떠한 점들을 전하려 하였던 것일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민족에 대한 언급입니다.

> "그들은 습성이 굳세고 사나우며 칼과 창을 능숙하게 쓰고 배 부리기에도 익숙합니다. […] 그들을 법도에 맞게 도와준다면 예를 갖추어 조빙(朝聘) 하지만, 법도에 어긋나게 하면 곧 방자하게 노략질을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오면 어루만져주고 음식을 넉넉히 공급하며 예절에 맞게 후히 대접하였는데도, 저들이 이를 보통 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거짓을 진실처럼 속이고, 곳곳에 오래 머무르며 세월을 허비하여 온갖 변고를 일으키고, 큰 골짜기 같은 욕심이 한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곧 성낸 말이 튀어나오지만, 땅이 떨어져 있고 바다가 막혀 있어서 그 실정을 파악하고 진위를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신숙주 2004, 42, 45)

이와 같이 신숙주는 기본적으로 일본 민족의 특성을 욕심이 많고

이익을 위해서 무력을 주저 없이 행사하는 예의 없는 자들로 보았으며,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왜구의 행위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조선전기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소중화 의식이 어느 정도는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만을 보고 신숙주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동제국기》를 통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래의 글귀와 같이 일본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하며, 그들의 실정을 제대로 알게 된 후 그에 맞게끔 예의와 성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체로 이웃 나라와 사귀어서 사신이 왕래하고, 풍속이 다른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접대하려면 반드시 그들의 형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예절을 극진히 할 수 있고, 예절이 극진한 연후에야 성심을 다했다 할 수 있습니다. […] 신이 일찍이 들으니 '오랑캐를 다스리는 방도는 밖을 정벌하는데 있지 않고 내치를 잘하는데 있으며, 변방을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조정을 다루는데 있으며, 무력을 강화하는데 있지 않고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다' 하였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신숙주 2004, 41, 43)

여기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표현한 일화는 고려의 말기에는 국정이 문란해지면서 환란이 생기게 되었지만, 조선왕조 때는 연이어 훌륭한 성군이 계승하면서 바깥의 민족들도 복종하여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숙주는 왜구를 전쟁으로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우선 내치를 바로 하고, 예절을 지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평화적인 외교를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해동제국기》에 일본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그들을 되도록이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려 했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 "무기는 창이나 칼쓰기를 좋아하고, 습속에 쇠를 단련하여 칼날을 잘 만드는데 정교하기가 비할 바가 없다. […] 젓가락은 있었으나 숟가락은 없다. […]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고 이를 묶었으며 사람마다 단검을 차고 다닌다. […] 사람들은 차 마시기를 좋아하며 길가에 다점(茶店)을 설치 하고, 차를 파는데 행인이 동전 일문(一文)을 던지고 한잔을 마신다." (신숙주 2004, 84-85)

이러한 풍습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매우 흡사하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양한 면모를 기술하였습니다. 정치에 관해서도 천황의 호칭과 일본의 연호를 그대로 쓰고, 대대로 내려오는 천황의 역사를 자세히 기술하였으며 "나라의 정치나 이웃나라와의 외교에도 천황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와 같이 천황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숙주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일본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은

《해동제국기》에서 아래와 같이 일본의 역사와 지형에 대한 묘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삼가 동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건대 한두 나라가 아니고 그 중에 일본이 역사가 가장 길고 가장 큽니다.땅이 흑룡강의 북쪽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제주의 남쪽까지 이르고 유구와 잇닿아 있어서 그 지형이 매우 깁니다." (신숙주 2004, 42)

조선 태종(1402년)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추해 보자면 그 당시 화이관을 통해 조선은 일본을 매우 작은 나라로 인식하였을 것이지만, 신숙주는 《해동제국기》에 해동제국전도(海東諸國全圖), 서해도구주도(西海道九州圖), 일기도도(壹岐島圖), 대마도도(對馬島圖), 류큐국도(琉球國圖)등 다양한 지도를 첨부하여 최대한 실제 일본의 모습을 인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동제국기》을 통해 살펴본 신숙주의 일본 서술을 통해 그가 어떠한 일본심상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주 한반도를 침략하였던 왜구와 그에 따른 일본 민족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일본은 무례한 국가이며, 조선이야말로 제대로 중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중화 사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미개하거나 알 필요도

없는 그저 부정적인 국가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禮)를 갖추고 마음을 다하는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랬습니다. 따라서 신숙주의 일본 심상은 어느 정도 객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실용적이면서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하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사록》으로 본 김성일의 일본심상

《해사록》은 조선시대 무신, 학자 및 외교관이었던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이 1590년(선조23) 정사인 황윤길, 서장관인 허상과 함께 부사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작성한 기행시와 서간문(書簡文)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1590년의 통신사는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온 1443년 통신사 이후로는 147년만의 방문이라 그 의미가 크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이후 달라진 일본을 탐지할 목적으로도 파견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통신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사인 황윤길과 부사인 김성일은 사행 내내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징비록》에 따르면 사행을 마치고 귀국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성일은 같이 다녀온 황윤길과는 달리 왜적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반된 보고를 함으로써 임진왜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김성일은 일본의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악명 높았던 김성일의 통신사 내의 불화와 상반된 귀국보고 그리고 과연 김성일이 가졌던 일본심상은 그 자체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 "저, 바다 섬 사람들은 / 양처럼 성을 내며 이리처럼 탐해/ 이익 보면 의리를 잊어버리고/ 교활하여 혓바닥 날름거리네/ 물건 팔아 생활을 영위하여/ 동남으로 분주히 쏘다니네/ 생명을 잊고 바다로 다니니/ 고생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워/ 우리 조정에서 관시(關市)를 두어/ 얽어매어 포용하기를 일삼았네/ 그 마음은 이익만 노리는지라/ 어찌 조공을 중히 여기랴/ 때를 타서 금령(禁令)을 범하여/ 우리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네." (김성일 1982, 246)

일본 민족의 특성에 대해 김성일과 신숙주가 묘사했던 모습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왜구의 탐욕스럽고 거칠며, 조선이 호의를 베풀어도 계속해서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아 두 사람 모두 왜구의 모습을 통해 소중화 의식을 뒷받침해 나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성일과 신숙주의 차이점이 있다면 신숙주는 이러한 소중화 의식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통해 일본 자체를 판단하기 보다는 더욱 그 정치,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알며 우호관계를 맺으려 노력하였지만, 김성일은 《해사록》 전반에 걸쳐 일본인을 이리, 쥐, 도적 등에 비유하며 멸시하고, 부정적인 심상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되는 것은 오랑캐 나라에서 옛 법을 몰라서 / 눈앞의 시가지가 아이들의 장난 같네 / 전조후시(前朝後市) 조금도 구별하지 못했고 / 좌오우사(左祖右社)를 누가 능히 밝히랴 / 천치백치(千雉百雉)는 또 정해진 제도가 없으니 / 왕공이 성을 쌓는 옛 법을 모르네 / 벌과 개미처럼 모여 사는 것 무엇 볼 것 있나." (김성일 1982, 236-237)

김성일이 일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해사록》의 곳곳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과 같이 일본인들이 제대로 된 예(禮)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성일은 예법에 관한 학문인 예학에 특히 조예가 깊었는데, 예와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은 그에게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에 같이 갔던 황윤길과 계속해서 예절에 있어서 자주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 것이 이해가 됩니다. 더 나아가 김성일이 신숙주 보다 소중화 의식에 사로잡혀 일본을 비교적 천대하고 우월감을 느꼈던 것은 바로 일본이 조선보다 예(禮)에 있어서 열등하다고 통신사행 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을 만한 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대마도주(對馬島主)가 가마를 탄 채로 통신사를 맞이한다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신사를 기다리게 만든 일화들이 있는데 《해사록》의 기록에서는 김성일의 분노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 일화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마도주 일화는 통신사가 대마도의 국분사(國分寺)에서

연회를 받았을 때 대마도주가 가마를 탄 채로 연회장에 들어 왔던 일입니다. 정사 황윤길은 그대로 연회를 받았으나 김성일은 퇴석하였고, 다음날 대마도주가 가마를 멘 자를 죽이며 사태가 일단락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성일의 기록을 보면 예를 지키는 것을 국체(國體)와 맞먹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일행이 유린을 당하였네 / 주렴을 들고 깎은 머리 드러내니 / 곧 대마도주였네 / (중략) / 내가 정사(正使)에게 고하되/ 이 욕을 참기 어렵소 / 숙소로 돌아감만 같지 못하니 / 어찌 저들과 환담하겠소 / 정사는 관용하기만 힘써서 / 짐승과는 비교하지 말자고 하네 / 나의 성질 본디 좁아서 / 분연 발길 돌렸도다 / (중략) / 스스로 생각하니 사신이 되어 와서 / 조그마한 추장에게 욕을 보았다 / 이것이 어찌 일신(一身)에 관계되랴! / 나라의 욕됨이 견줄 데가 없다네 / (중략) / 국치를 씻을 계책 없으니 / 분개하여 목에 혹이 날 지경이네 / (중략) / 이튿날 아침 왜사(倭使) 앞에서 / 곤장 열 대 때리고 말았네 / 왜사를 앞에 불러 와서/ 예의(禮義)로 꾸짖었으니 / (중략) / 가마 멘 자에게 죄를 돌려 / 목베어 피가 흐르네 / (중략) / 인명이 아깝기는 하나 / 열병은 이제야 나았소 / 국치를 만일 씻지 못하였다면 / 어떻게 천추에 보일 것이오." (김성일 1982, 250-251)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의 일화는 통신사가 일본에 도착하여 도요토미를 접견하려 하였으나 도요토미는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대며 통신사와의 만남을 미루었습니다. 계속해서 왕명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뇌물을 써서 국서를 빨리 전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자 김성일은 이런 도리와 예에 어긋나는 상황과 대처에 분개합니다.

> "왕명이 일본에 체류된 지 / 지금까지 5월이네 / (중략) / 국서를 받들고 날 새기만 기다리네 / 더럽도다, 거치른 오랑캐 풍속이여! / 신의(信義) 원래 소홀히 여기네 / 이웃 국교를 없는 것처럼 보아 / 사신을 감히 멸시하네 / 빈 산중에 버려두고/ 우리를 접견할 뜻이 없네 / 예(禮)가 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궁궐을 자랑하고자 하네 / (중략) / 주는 데 예가 있고 받는 데 의(義)가 있어야지 / 그 사이에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재물로 하는 마음이 있다면 / 의와 이가 하늘과 땅처럼 구별되도다 / 하물며 당당한 대국의 사신이 / 오랑캐에게 뇌물을 쓴다는 건 무슨 뜻인가?" (김성일 1982, 254-258)

《해사록》에는 시 형식의 기록 외에도 편지 형식의 글도 있는데 이러한 글에서도 김성일이 비슷한 일본 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김성일, 1982: 285-286). 김성일은 신숙주와는 전혀 다르게 '은혜와 신의로 회유하여 안정시키는 것' 보다는 '도리나 예에 맞게 행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소중화 의식에 더욱 불을 붙이며 일본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심상을 바탕으로 통신사행 이후 일본이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똑같은 일본을 똑같은 시기에 바라보았음에도 전혀 다른 일본 심상을 가진 김성일을 두고 한편에서는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조선의 국제정치학적 구조를, 한편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당파 간의 대립을, 한편에서는 김성일 개인의 예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성격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으나 《해사록》과 그 당시 주변 정세를 통해 김성일의 심상을 유추해 보았을 때, 김성일의 예의와 명분을 중시하던 그 개인의 특성이 소중화 사상이 저물어 감에도 주변 정세에 어두웠던 시대적 상황과 겹쳐지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신숙주와는 다른 일본 심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한국의 일본 심상을 찾아서

임진왜란이라는 한일 간에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기 전, 같은 조선전기이지만 100년의 시간차이를 두고 신숙주와 김성일은 비슷하지만 다른 일본 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본 심상에는 모두 소중화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으나,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김성일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김성일은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한 일본을 보며, 자신의 도리와 법도를 중시하는 사상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통적 화이관에 더욱 매몰되어 제대로 된 일본을 마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성일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100년 동안 일본과 교류가 단절되며 일본 및 동아시아의 실정에 대해 어두웠던 조선의 상황과 연결되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의 일본 바라보기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고민을 나고야 성터의 중심인 혼마루에서 점점 강해지는 바람을 맞으며 생각하였습니다.



▲ 나고야 성터의 중심지 혼마루(本丸)의 모습

저는 신숙주와 김성일 모두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보며 동시에 마음을 다하는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김성일처럼 개인이나

시대가 만들어낸 심상의 편견을 통해 상대방의 국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가장 높은 곳인 덴슈다이(天守台)에서 바라본 풍경

일본 심상에 대한 생각이 깊어갈 때쯤 마침내 가장 높은 곳인 덴슈다이에 당도하자 칼 바람은 거의 절정으로 불어 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 춥고 강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자 사랑방 팀들은 바람이 빨리 성에서 내려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지 않느냐며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덴슈다이에 올라서서 백제의 25대 무령왕이 탄생했다고 전해지는 가카라시마(加唐島)를

바라보며 일본 심상에 대한 저의 생각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무령왕과 일본의 우호적인 교류로 인해 2002년부터 매년 6월 첫 번째 토요일에는 무령왕 탄생제가 열린다는 가카라시마를 임진왜란의 전초기지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그 아이러니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고야 성터라는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일본 심상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조선전기라는 공간에서 김성일과 신숙주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일본심상을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 답사를 마친 후 내려가는 모습. 왼쪽 건물이나 고야성 박물관

나고야 성터 답사를 모두 끝낸 후, 성터에 올라 왔던 길을 따라 다시 내려가는 도중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구에 당도할 때쯤 거짓말처럼 답사 내내 우리를 괴롭히던 강한 바람이 모두 그친

것입니다. 바람이 나고야 성터 안에서 계속 불었던 것은 우리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일까? 성터가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일까? 의견이 분분했지만 저는 운명적으로 만난 나고야 성터가 일본을 향한 우리의 심상 찾기를 재촉해 준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임진왜란을 포함해 독도, 위안부, 식민지배 등의 문제에 의해 강한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명량이 한국영화 관객 동원 1위를 기록하고, 일본을 크게 물리친 이순신 장군이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이 꼽히며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과 함께 놓여있다는 것이 그러한 뿌리깊은 반일 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본 심상이 어쩌면 그것보다 조금 더 복합적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나고야 성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렇게 멈추었습니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1970.《조선왕조실록》.

김성일. 1982. “해사록”. 《고전 국역총서 해행총재》. 창원: 민족문화추진회.

손승철. 2008.《海東諸國紀의 세계》. 파주: 경인문화사.

신숙주. 2004.《해동제국기》. 파주: 범우사.

이용희. 1970. “한일관계의 정신사적 문제-변경문화 의식의 갈등에 대하여”. <신동아>. 8월호.

하우봉. 2013. “근세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 한일관계사학회 · 한일문화교류기금.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같은 점 다른 점, 교류와 갈등의 역사》. 파주: 경인문화사.

한일관계사학회. 2013.《1590년 통신사행과 귀국보고 재조명》. 파주: 경인문화사.

村井章介. 1988.《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東京:校倉書房.

5 장

물마루를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길
_해상 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김혜진

시카고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들어가며

엊그제 일인듯 아득한 옛날 일인듯 사랑방 7 기 답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답사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 새삼 감회가 새로운 이유는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방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사세보 미 해군기지 답사를 맡게 되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좀처럼 회신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다 재차 보냈던 이메일. 답신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방문하고자 하는 날(12 월 27 일)이 크리스마스 직후였기에 담당자가 휴가인 관계로 함선 승선 및 견학도,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웠지만, 하영선 교수님께서 대신 근처에 있는 해상 자위대 사세보 사료관을 방문하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방 7 기는

사랑방 역사 최초로 미군 기지가 아닌 사료관으로 답사를 가게 되었습니다.[1]

어렵게 새로 정한 답사지였지만, 이번엔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보고서를 도저히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가 없었고, 고민을 하다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제 사정을 이해해주셨고, 사랑방 모든 분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무사히 답사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준비에 비해 제가 많이 미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제일 먼저 전합니다.

해상 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소개

규슈 지역을 셀 수도 없이 많이 와보신 하영선 교수님께서도 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海上自衛隊佐世保史料館)은 처음이라고 하신 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료관 내에서는 사진 촬영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글로만 전달을 해야하는데, 제 필력으로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1] 일본 방위성 정보에 따르면, 매주 3 번째 목요일과 연말연시(12 월 28 일 ~ 1 월 4 일)는 휴관이라고 하니, 차기 사랑방 가족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사세보 사료관. 일본 방위성의 소개에 따르면, 사세보 사료관은 일본 해군의 유산을 계승하는 시설로, 사세보 수교사(佐世保水交社) 건물의 일부를 복원하여 새롭게 증설한 곳입니다. 1997 년에 개관한 사세보 사료관의 전신은, 1968 년에 세워진 해상 자위대 자료관(海上自衛隊資料館)이라고 하니, 약 반세기에 걸친 긴 역사를 간직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마루를 넘어서”(波とうを越えて) 라는 전시 테마를 반영한 사세보 사료관은 정면은 유리를 사용하여 푸르고 드넓은 바다를 표현하고, 건물 상부에는 순백의 돛을 표현하는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이 돛 때문에 사세보 사료관은 “Sail Tower”라고 불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거친 파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일본 해군의 기상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 사세보 사료관 앞

사랑방 7 기



▲ 해상자위대 사세보 사료관 7 층에서 바라본 전경

총 7 층으로 구성된 사세보 사료관은 일본 근대 해군의 탄생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일본 해군의 사료, 그리고 전후(戰後) 해상 자위대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 층부터 관람을 시작하여 내려오면서 관람을 하면 시계열 순으로 일본 해군이 걸어온 길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7 층은 전망대로 사세보 항구와 사세보 기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날에도 저만치 멀리에 미군함대로 추정되는 함대가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간상의 관계로 미처 시청하지 못했지만, 약 45 분 길이의 해상자위대에 관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홀도 있습니다. 영상은 “결단, 신념, 도전, 단결, 열정”이라는

해상자위대 5 개의 테마에 관련된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세보 사료관 6 층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해군부터 메이지(明治) 해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1855 년에 해군사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나가사키 해군 전습소(長崎海軍伝習所)를 설치하여 네덜란드 군인을 교사로 선발해 난학 및 각종 항해술을 전습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전습소는 일본 해군 창시기의 인재를 배출했다고 알려집니다.

사세보 사료관 5 층에서는 청일전쟁(1894-1895) 및 러일전쟁(1904-1905) 당시 일본 해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군함은 일본제보다는 외국제, 특히 영국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령, 당시 일본 연합함대의 기함이었다 미카사(三 笠) 역시 영국제 함대로, 사세보 사료관에서는 그 모형을 볼 수 있지만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神奈川県横須賀市)에 가면 실물을 볼 수 있는듯 합니다. 5 층의 주요 전시 테마인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사실 한반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러일전쟁은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다음날 방문했던 청일강화기념관은 시모노세키조약(下関条約)이 맺어진 곳인데, 이 조약의 1 조는 전쟁 당사국인 일본도 청나라도 아닌, 조선의 자주독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얼룩지고 고통받았던 역사가 자랑스럽게 전시된 것을 보니, 씁쓸하기도 하고 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층 밑으로 내려가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41 년 12 월 8 일(일본시각 기준),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항상 미국의 당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의 선전포고를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 "Yesterday, December 7th, 1941 -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라는 표현이 제게는 제법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일텐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미국인,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은 과연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한국인에게, 그리고 일본군에게 기습당하고 제 2 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 미국인에게, 이 날은 기억하고 싶은 날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인에게 있어, 제국주의의 기억은 훨씬 더 복잡하게 기억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사와, 주변국과 화해할 길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 7 층에서 21 세기의 미일동맹에 관해 발제하는 모습

사료관의 2 층과 3 층에는 현대 일본 해군, 즉 해상자위대의 역사, 함선, 활동, 제복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우선 일본 해상 자위대(海上自衛隊)는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자위대 중 해상 부문에 해당하는 조직이며, 일본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만큼 해상 자위대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1 개의 기지를 두고 있는 해상 자위대의 규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 년 3 월 31 일 기준으로, 해상자위대는 통상 동력형 잠수함 16 척(약 4 만 5 천 톤), 호위함 47 척 (약 22 만 2 천 톤), 기뢰함 27 척 (약 2 만 6 천 톤), 초계함 6 척 (약 1 천 톤), 수송함 11 척 (약 2 만 8 천 톤), 보조함 30 척 (약 12 만 6 천 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계헬리콥터, 구난기, 전자전기 등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 내부 조직으로는 자위함대(自衛艦隊), 요코스카 지방대(横須賀地方隊), 구레 지방대(呉地方隊), 사세보 지방대(佐世保地方隊), 마이즈루 지방대(舞鶴地方隊), 오미나토 지방대(大湊地方隊)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방문하고자 했던 사세보 미 해군기지는 아무래도 사세보 지방대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겠지요. 자위함대는 다시 호위함대, 항공집단, 잠수함대, 소해함대의 하부조직으로 나뉘는데, 사세보의 제 2 호위대군(第 2 護衛隊群)은 호위함대 소속입니다.

맺으며

사실 사세보 미 해군기지 사령관과 만날 수 없었다는 게 개인적인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지, 미국이란 대국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그 속에서의 일본과 한국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바라보는 미국, 일본, 한국과 한국이 바라보는 미국, 일본, 한국은 과연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더욱더 흥미진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사세보 사료관 견학을 계기로 한국의 국력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날 밤, 하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교수님과 다같이 담소를 나누던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7 층짜리 건물을 다 채울만큼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은 과연 층 하나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조차 모르겠다고 하시던 교수님의 말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국이 정말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적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라는 더 넓은 무대에서 스스로의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1 세기의 국제정치 역학은 꼭 현실주의자들이 예단하는 것처럼 '파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프린스턴의 아이켄베리 교수는 한국, 일본과 같은 중견국이 오히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도, 중국도 중견 국가들과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견 불안정한 현재의 국제정세가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물마루를 넘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일본 및 기타 중견국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참고문헌

Ikenberry, G. John. 2015.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the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1(1): 9-43.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http://www.mod.go.jp/msdf/formal/about/basic/rol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Sasebo District. http://www.mod.go.jp/msdf/sasebo/index.html.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6 장

아리타, 지구적 도자기 문화의 중심에 서다
_규슈도자문화관

임현철
가톨릭대학교

들어가며

이 도자기들은 어느 나라의 도자기일까요? 정답은 15세기부터 17세기에 만들어진 베트남, 중국, 시리아, 일본, 페르시아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제도를 지닌 국가들이 '청화'라는 공통된 양식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핀레이(Finlay)는 자신의 저서에서 도자기가 동서양을 거쳐 이동하고 거래되면서 하나의 지구적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Finlay 2010).

하지만 지구적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평평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술 수준에 따라 중심과 주변이 존재했고 중국은 도자기 문화의 중심에 있던 국가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중심과 주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기(Porcelain)의 생산 가능여부입니다. 위의 도자기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기인 것은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것 뿐입니다.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제작기술은 당시 최첨단에 속했으며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과 인력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이센(Meissen) 자기의 비밀이 밝혀지는 1709년까지 중국, 조선, 일본, 그리고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말부터 약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본은 지구적 도자기 문화권에 편입해 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적 도자기 문화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규슈도자문화관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과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일본 아리타 도자기의 지구적 도자기 문화권 편입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답사기가 독자들에게도 기술-문화 전파의 조건과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청화백자에 대해 발제하는 모습

지구적 도자기 문화의 상징, 중국의 청화백자

2016년은 아리타(窯業)가 4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리타에 위치한 규슈도자문화관(九州陶磁文化館)에서는 다양한 특별전이 차례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방 7기 답사팀이 방문했을 때에는 <일본자기의 원류>(日本磁器の源流)라는 이름으로 수만 점의 중국 청화백자가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사진으로 남기진 못했지만 다양한 크기와 문양의 청화백자가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광경은 압도적이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유려한 백자 위에 선명한 코발트 안료로 세세하게 그려진 문양들은 작품마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담겨있었습니다.

아리타 자기가 400주년을 맞는 해에 <일본자기의 원류>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청화자기를 전시한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원나라 때 처음 생산된 중국 경덕진의 청화백자는 지구적으로 도자기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쉬누아즈리(Chinoiserie), 즉 '중국 취미' 가 유행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청화백자가 있었습니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흙과 소성기술입니다. 특히 자기(Porcelain)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령토(Kaolin)라는 특별한 흙이 필요합니다(미스기 2001, 68). 도기와는 달리 자기는 얇게 빚으면 뒤가 비칠 정도로 투명성이 높고 두드리면 맑은 소리가 나는데, 이는 고령토의 성분 때문입니다. 또한 도기는 1,200도의 온도에서 구우면 열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리는 반면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당시 자기 제작의 비법을 알고 있었던 국가는 중국과 주변의 몇몇 아시아 국가뿐이었고, 이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던 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자기의 특별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윤용이 169-171).

청색 안료로 문양을 칠해 구워낸 자기인 '청화백자'는 14세기 아라비아 상인들의 주문으로 경덕진에 서 서남아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미스기 2001, 79-81). 즉, 중국의 자기 제작 기술과 서남아시아의 코발트 안료가 결합된 청화백자는 두 지역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동하여 청화백자를 판매했으며, 특히 오스만 제국의 왕과 귀족들에게 사치품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청화백자는 중국의 상징이 됩니다(팡리리 2005, 88).

하지만 육로로 이송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유럽으로 수급되는 도자기의 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구적 도자기 문화권은 유럽에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의 자기가 유럽으로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미스기 2001 139-140). 원래 아시아의 해상 무역로는 포르투갈의 관리아래 있었지만 본격적인 자기수입은 17세기 네덜란드가 시작했습니다. 1602년 설립된 최초의 민자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Indische Compagnie, VOC)는 이익을 위해 아시아 진출을 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602년과 1604년에 네덜란드의 배가 포르투갈의 무역선을 나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Finlay 2010, 253-4).

나포된 배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자기들이 있었고 이 자기를 본국의 경매장에서 판매하며 엄청난 이윤을 남긴 VOC는 직접 중국의 경덕진 도자기를 대량으로 수입해서 다른 지역에서 되파는 중개무역을 시작하면서 중국의 자기는 기존의 실크로드가 데려다 주지 못했던 곳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배를 통해 물건을 대량으로 선적할 수 있었고, 이는 중국 도자기가 극소수를 위한 사치품에서 다수를 위한 상품이 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도공들은 문양만 중국풍인 도기를 만들어 팔기도 했는데, 미스기는 이런 모조품이 생산되는 현상은 중국 청화백자가 당시 유럽에서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미스기 1992, 82).

이처럼 중국의 청화백자가 세계의 도자기 문화를 선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자기 기술과 대량 생산이라는 기술적 우수함과 국제무역 네트워크로의 편입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청화백자는 일본 자기뿐만 아니라 세계 자기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청화백자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 자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세계의 변방이었던 일본이 어떻게 도자기 문화의 주연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줍니다.

후발주자 일본의 도약, 임진왜란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도자문화관을 관람한 후 답사팀은 아리타 도자기의 시조로 추앙되는 이삼평을 기리는 도잔 신사와 이삼평 기념비로 향했습니다. 도조 이삼평과 조선 도공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 자기의 시초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요소입니다. 일본은 16세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자기 제작기술과 지구적 무역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문명의 전파가 어려웠고, 흔히 알려져 있듯이 중국의 문화와 기술이 한반도를 통해 지연되어 유입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은 일본이 단시간에 자기 생산국이 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개시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번주들이 도공을 포함한 조선의 기술자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Finlay 2010,182).



▲ 도조 이삼평 자기상(磁器像)

조선 도공들이 정착한 규슈의 마을 중 하나인 아리타에는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삼평을 '도조'라고 칭해 기념탑을 세우고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리타 도자기의 탄생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이즈네야마에서 자기의 핵심 재료인 고령토를 찾아냈고 그 일대에도 자기 산업단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삼평을 비롯한 조선 도공들은 일본에게는 엄청난 고급 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로 1616년 일본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멍을 파서 만드는 구멍 가마뿐이던 일본에 산의 경사면을 이용한 조선 방식의 오름 가마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마는 열소실이 적어 가마 내 온도를 충분히 올릴 수 있었고 여러 개의 가마가 길게 이어져 대량생산이 가능했습니다(이은미 2011, 142).

이삼평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기록 중 당시 나베시마의 번주가 조선 도공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 다쿠 미사쿠모리(多久美作守)가 조선에서 귀국할 때 데리고 와서 측근에 둔 조선인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풍의 도자기를 굽는 기술을 가진 우수한 도공이었다. 그가 다쿠의 허락을 받아 (아리타에 와서) 일본인을 몰아내고 혼자서 그릇을 생산하겠다고 청원을 하여 이것이 인정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일본인은 여기서 가마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三上次男 1989, 110-111; 노성환 2014, 303에서 재인용)

또 다른 기록에서도 아리타와 이마리 일대의 800명에 달하는 일본 도공들이 폐업하고 추방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노성환 2014, 304).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국민을 추방하라는 전쟁 포로의 요청을 들어주다니 말입니다. 갑작스런 구조 조정을 맞은 일본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슬프면서도 조선 도공의 기술력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 이삼평 기념비 앞 남자들만의 한 컷

일본은 자기 제작 기술과 상당한 생산력을 확보하여 임진왜란 이후 약 30년 만에 자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전쟁 당시 일본인들이 도공들의 마을과 가마를 파괴하면서 인력과 시설이 모두 부족한 처지였고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Finlay 2010, 182). 한국인으로서 당시 희생되거나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생각하면 임진왜란을 단순히 기술의 전파 요인으로 여기기가 참 힘듭니다.

일본이 지구적 도자기 문화에 편입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라는 국제적 해상 무역 네트워크에 발을 걸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641년 네덜란드에게 유일한 무역 권한을 부여하고 데지마에 거류지를 마련했습니다. 1602년부터 교류를 시작했지만 당시 네덜란드는 일본의 도자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은과 구리가 가장 중요한 거래 품목이었습니다(와타나베 2013, 244). 하지만 이러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와의 연결은일본의 지리적 위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시아의 끝에 위치한 섬나라였던 일본은 육로를 통한 교류에서는 변방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통해 중국과 조선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유럽 등의 세계와 연결되면서 지리적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Lim 2011, 44).

사실 동인도 회사는 조선과도 직접적인 무역로를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시도는 무산되는데, 조선의 쇄국정책과 더불어 당시 조선과 직접적으로 무역을 하던 유일한 나라인 일본과 청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독점무역을 희생해 가면서 조선과의 무역을

강행할 수는 없었습니다(Blussé 2003, 103).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조선에서 구하고자 하는 품목에 도자기는 없었습니다만, 이때 네덜란드와의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시간이 흘러서 조선 도자기가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데지마에 전시되어 있는 VOC 청화백자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 명청 교체기

위의 조건이 만족되었다고 해도 규모나 기술면에서 중국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50 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도자기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일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656 년은 일본의 도자기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였습니다. 청나라를 건립한 만주족은 중국 남부에서 항쟁하는 반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 해부터 1684 년까지 해금정책을 시행합니다(Nogami2007, 125). 동인도 회사는 청으로 사절을 보내 무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청나라는 이를 거절합니다(生田 2004, 84-5). 결국 1957 년 중국 도자기의 공식적인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부지역에서 만주족에 저항하던 세력이 네덜란드의 사절이 청의 황제를 만났다는 것을 이유로 항구를 폐쇄합니다(Volker 1971, 59). 1661 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거점이었던 대만까지 반란 세력에게 점령당하면서 중국에서의 도자기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生田 2004, 85). 이제 그들에게는 도자기를 수급할 대체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춘 곳이어야 했는데, 일본은 그나마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약 30 년간 이어지는 경덕진 도자기의 공백을 틈타 아리타 도자기는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지구적 도자기 문화에 본격적으로 편입됩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아리타 도자기

경덕진 도자기의 대체품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초기 아리타의 도자기 생산은 경덕진 양식의 청화백자에 집중되었습니다. 1659년에는 일본으로 중국 도자기 염료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고 있던 상태였고 일본은 자신들의 생산품 일부를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달했던 상태였습니다(와타나베 2013, 247). 다음해, 아리타 도자기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주문되는데, 청화백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리타 자기의 품질은 수출이 시작되기 전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많은 주문과 대량생산에서 비롯된 압박이 그 품질을 중국의 그것과 맞먹을 만큼 발전하도록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Lim 2011, 51).

하지만 경덕진 도자기의 대체품으로서 수출되었던 아리타 도자기는 분명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Volker(1971, 172-4)는 일본 도자기의 수출이 매우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아리타 자기의 수출이 가장 많았던 1659 년에서 1682 년까지의 시기에 수출된 도자기의 양은 190,000 점에 불과하며 중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다고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가 높은 가격에 있다고 말합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청나라가 안정화되고 경덕진의 도자기가 다시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자 일본 도자기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도자기가 품질과 가격에서 중국의 도자기를 뛰어넘을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시기적인 기회와 동인도 회사와의 연결이 아리타 자기의 세계 시장 편입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이 지구적 도자기 문화에 끼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 일본은 모방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내어놓는데, 그것이 바로 가키에몬 도자기를 포함한 이마리 도자기입니다. 청화백자가 청색만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마리 도자기는 색화 자기로, 여러 색상의 안료와 금장을 사용해서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가키에몬 양식은 붉은 안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유럽인들의 인기를 얻습니다(Gunn 2011, 279-280). 경덕진이 복구되고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자기의 가격이 낮아졌지만, 가키에몬 도자기는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습니다(KBS 2004). 마이센 도자기를 비롯한 유럽의 도자기 생산자들은 이러한 가키에몬 양식을 모방했습니다. 중국 청화백자를 모방하며 시작했던 아리타 도자기가 이젠 반대로 모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 데지마 전시관에서 찍은 17 세기 색화 자기



▲ 도자문화관 근처의 한 카페

규슈도자문화관 관람을 마치고 답사팀은 근처에 위치한 유명한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도자기 찻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메뉴를 정할 때 자신이 원하는 찻잔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음에 들면 그 찻잔을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따로 도자기 기념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도자기를 구경하며 차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곳의 찻잔들은 도자문화관에서 보았던 전통적 자기들이 아닌, 현대적인 디자인의 서양 다기가 다수였습니다. 도자문화관에서 일본 자기의 과거를 보았다면, 이 카페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문화의 변방에서 문화를 전파하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물론 일본의 도자기가 높은 품질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경덕진 도자기의 대체품으로 선정될 수 있었고, 가키에몬 도자기도 유럽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기 기술의 기원과 수출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일국적 관점만으로는 아리타 도자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으로부터의 기술 전파가 없었다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아리타 도자기가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비약이 있겠지만, 이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명청교체기라는 시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국가 중심적인 역사는 민족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논의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더 나아가 지구적 시각으로도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답사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 아리타 카페에서 단체사진

참고문헌

노성환. 2014. '일본 아리타의 조선 도공 이참평에 관한 연구'. <일어일문학> 62.

미스기 다카토시. 2001.《동서도자교류사-마이센으로 가는 길》. 파주: 눌와.

와타나베 요시로. 2013. 히젠(肥前) 도자기의 해외 수출과 나가사키항. <로컬리티 인문학> 제10호.

윤용이. 2007.《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 파주: 돌베개.

황정덕, 도진순, 이윤상. 2010.《임진왜란과 히라도 미카와치 사기장: 세계적 보물을 빚은 피랍 조선 사기장을 찾아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Blussé, Leonard. 2003. '만남과 발견: 극동 아시아에서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활동'. <동방학지> 122.

KBS. 2004. <KBS 스페셜: 도자기 1-6편>.

生田滋. 2003.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아시아 무역으로의 진출'. <학술대회> 1.

Finlay, Robert. 2010.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unn, Geoffrey C. 2011. History without Borders: The Making of an Asian World Region, 1000-1800.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Lim, Tai Wei. 2011.'Re-centering Trade Periphery through Fired clay: A Historiography of the Global Mapping of Japanese Trade Ceramics in the Premodern Global Trading Space.' *Sino-Japanese Studies* 18.

Nogami Takenori. 2006. 'On Hizen Porcelain and the Manila-Acapulco Galleon Trade,'*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26.

Volker, T. 1954. *Porcelain and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As Recorded in the Dagh-Registers of Batavia Castle, Those of Hirado and Deshima and Other Contemporary Papers, 1602-1682*. Leiden: Rijksmuseumvoor Volkenkunde.

부록

- **EAI** 사랑방 **2016**년 **2**학기 프로그램
- **EAI** 후원회원

“현대 세계정치 바로 보기”

1주 세미나 안내

2주 근대 유럽과 국제정치사상

3주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정치학의 탄생

4주 냉전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5주 연구계획서 발표

6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I: 역사 vs 과학

7주 데탕트와 패러다임 논쟁

8주 신냉전/탈냉전과 신현실주의/신자유주의

9주 국제정치학 방법론 논쟁 II: 실증주의 vs 탈실증주의

10주 복합화와 구성주의

11주 복합화와 세계역사사회학

12주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학

13주 한국의 국제정치학

14주 통일의 국제정치학



사랑방의 젊은그들 규슈를 품다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강명훈
강은모
강찬수
강현욱
고병희
고승연
고혜선
공성원
공정문
공창위
구상환
구윤정
구준서
권세린
김가현
김건민
김경순
김경지
김광덕
김국형
김기준
김남희
김대영
김동건
김동호
김민규
김병국
김병희
김봉하
김상래
김수진
김승빈
김시연
김영구
김영원
김용남
김 원
김유상
김유주
김은영
김재두
김 정
김정섭
김정온
김정은
김정하
김 준
김지우
김지윤
김지태
김 진
김진영
김진혁
김창수
김태균
김한기
김현석
김현성
김현전
김형운
김형찬
김희정
김희진
남윤호
노봉일
노호식
노환길
류재희
명정모
민선식
민선영
박근아
박미영
박사라수현
박상민
박상용
박석원
박선정
박성만
박수진
박연호
박영택
박용준
박장호
박재시
박정섭
박진원
박찬근
박찬희
박창완
박형민
배기욱
배위섭
백송현
백혜영
서은숙
서정원
서희정
선승훈
성정은
손대현
송기춘
송우엽
송지연
신동원
신명철
신보희
신상화
신성수
신성호
신영준
신영환
신준희
안용찬
안정구
안중익
안현정
안현호
양호실
엄찬섭
여동찬
여현정
우미경
유승훈
유정석
유지영
유창수
육은경
윤병석
윤영두
윤용집
윤우성
윤재훈
윤정림
윤정선
윤창민

동아시아연구원을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윤혜성
이근우
이기호
이내영
이동훈
이미혜
이민교
이범주
이상원
이상훈
이서현
이선주
이선희
이성량
이소민
이숙종
이승훈
이시연
이신화
이여희
이영석
이영주
이원종
이인옥
이재섭
이정은
이정호
이정희
이제원
이종호
이주연
이주연
이중구
이지원
이지희
이창원
이 항
이해완
이현옥
이현희
이호준
이홍구
이홍재
이희정
임지순
임현모
임현진
임홍재
장동우
장세린
장세형
장재훈
장준혁
장진호
전경수
전혜진
정기용
정랑호
정병갑
정석희
정영진
정용화
정원칠
정윤석
정윤호
정재관
정주연
정진영
정해일
정현윤
정현주
정현철
조규남
조규완
조동현
조은희
조현선
주영아
지혜리
진선희
진재욱
차국린
차동민
채규민
채규호
최 건
최규남
최동규
최병규
최복대
최종호
최준원
최철원
하형일
한금현
한상철
한숙현
한승혜
한일봉
한정원
한지현
허세홍
홍성우
홍성원
홍호영
황 수
황정원
W1°